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전 홍 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조 미 숙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전 홍 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조 미 숙

인 준 서

조미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교사들의 고충을 알아보고, 영아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G시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만 1세 영아 두 학급과 그 담임교사로 2015년 4월 중순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각각의 어린이집에 2주에 1회씩 방문하여 교사의 출근에서 퇴근까지 총 16회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낮잠시간과 하루일과 마무리 시간을 활용하여 교사와 총 3회의 심층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고 반복하여 읽으며 범주화 하였다. 범주별로 대표성을 띠는 제목을 붙이고 범주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해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 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영아교사

역할수행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는 등원시간에 나타나는 영아의 분리불안, 실·내외놀이 및 집단 활동시간 영아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한 충동적 행동, 대근육 위주의 신체활동에 비해 신체조절력의 미숙,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는 일과 활동 중 씻기, 배변 활동, 급·간식 시간에는 자조 기술이 부족한 영아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낮잠시간에는 영아의 개별 생리적 요구에 따라 낮잠을 재우면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귀가시간에는 만 1세반 영아의 언어미발달로 영아교사가 영아에 대한 일과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나누는 과정에서 종종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태도로 인해 영아교사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만 1세반 영아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영아가 등원하는 순간부터 귀가하기까지 일과전체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언어적 지도가 어렵고, 개별적이고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한 만 1세반 영아의 발달적 특성 측면에 기인한 영아교사 역할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유아교사의 어려움과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영아교사는 긴 시간의 종일보육을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이고 체계화된 어린이집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영아들을 일과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영아의 움직임과 이동성, 생리적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공간 구성은 영아교사의 육체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교사와 소통하기 어려운 교실의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는 것을 나타냈다.

둘째, 만 1세반 영아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정서적 노동, 육체적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에도 이를 숨기고, 외적으로는 영

아교사로서 바람직한 정서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 1세반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환경으로 영아교사는 긴 시간동안 동시다발적 역할수행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영아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육체적 노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아교사는 영아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정서적, 육체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원장, 부모, 국가로부터 신뢰와 전문성 인정,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함을 볼 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1세반 영아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영아의 연령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아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에서도 영아교사의 보살핌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보살핌은 교사만의 역할이 아닌 교사, 원장, 학부모, 사회, 국가가 함께 보살핀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사의 보살핌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 및 협력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8
1. 만 1세반 영아의 발달적 특징	8
1) 신체발달	9
2) 언어발달	10
3) 인지발달	12
4) 사회·정서발달	14
2. 만 1세 영아반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하루일과 구성	17
1) 만 1세 영아반 물리적 환경구성	17
2) 만 1세 영아반 하루일과 구성	20
3. 만 1세반 영아교사	22
1) 영아교사의 역할	22
2) 영아교사의 근무환경	26
4. 선행연구	27

Ⅲ. 연구방법	32
1. 연구 참여자	32
1) 연구기관	32
2) 하루일과	35
3) 영아교사	37
4) 영아	39
2. 자료수집	39
1) 예비연구	39
2) 본 연구	41
(1) 참여관찰	42
(2) 심층면담	43
(3) 기타자료	44
3. 자료 분석	44
Ⅳ. 결과 및 해석	46
1.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46
1) 만 1세반 영아교사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	46
(1) 영아의 분리불안	46
(2) 영아의 충동적 행동 및 신체조절 미숙에 의한 안전사고의 두려움	48
(3) 자조기술이 부족한 영아 개별적 돕기	53
(4) 영아의 개별낮잠 요구에 따라 낮잠 채우기	58
(5) 학부모와의 관계맺음의 어려움	59
2) 장시간 종일보육에서의 어려움	61
3)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하루일과에 영아 적응시키기 어려움	64

4) 비효율적 공간구성으로 인한 어려움	68
5) 동료교사와 소통하기 어려움	72
2.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	73
1) 정서적 노동	74
2) 육체적 노동	80
3)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85
V. 논의 및 결론	93
1. 논의	93
2. 결론 및 제언	103

참고문헌

부 록

ABSTRCT

표 목 차

<표 1> A 어린이집 일반적 배경	33
<표 2> B 어린이집 일반적 배경	34
<표 3> A·B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일과표	35
<표 4> 영아교사의 일반적 배경	38
<표 5> 영아의 일반적 배경	3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2000년 중반 이후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정부 지원정책의 시행에 따라 영아보육형태에 있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0년 중후반에는 성인에의 의존도가 높고 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특징을 고려하여 기관에서의 집단 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견해(표갑수, 2010)가 만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양육을 시행하는 양육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12년 0-2세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구 여건과 관계없이 영아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황옥경, 2013). 이후 2013년 3월,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정책이 도입됨으로써 기관 보육 영아수가 전년보다 약 10만 명가량 감소하였지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여전히 전체 영아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현상은 기관을 통한 영아보육이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영아기는 생애 어느 시기보다도 성장과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초기 2~3년의 영아기 발달은 이후 발달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이기숙 외, 2015)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영아는 양육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좋은 양육을 받은 영아는 애착을 형성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장해 간다(심미경, 2012). 이렇듯 영아기의 양육이나 보육의 질은 향후 영아의 성장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영아기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이미화, 2015).

최근 어린이집 보육대상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차츰 길어지고 있다. 황정미(2012)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은 일상생활 중 10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15)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매일 평일 오전 7:30-19:30분으로 12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보육진흥원(201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영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하루일과가 시작되며 등원, 실내자유놀이, 실외자유놀이, 급·간식, 휴식·낮잠, 전이시간, 기본생활, 특별활동, 집단 활동, 귀가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이들의 활동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교사는 영아의 하루일과에서 필요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일과를 계획하고 운영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양육뿐만 아니라 최상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양옥승, 최경애, 이혜원, 2015).

본 연구에서는 기관에서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아 보육교사가 하루 일과에서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영아보육의 전문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김순환, 전셋별, 2010; 성은영, 최승연, 2014; 최경애, 2002; 최효영, 2010; 탁정화, 황해익, 2012)들은 영아교사가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경험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영아 식사지도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한 강경희와 전홍주(2012)의하면 영아교사는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배변훈련 등과 같이 다중적 역할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교사가 직전교육만으로 보육현장의 다양성을 살피면서 적절한 교수 역할을 실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박은혜(2005)는 영아보육은 영아의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도록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공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영아교사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영아교사 역할의 어려움을 분석한 박남희와 이대균(2014)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의사소통, 기본생활지도, 규칙과 허용의 경계 짓기, 훈육, 학부모와의 관계 등과 같은 영아교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영아보육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부족 및 경험부족으로 인해 영아를 어떻게 보살피고 가르칠 것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이 영아보다는 유아를 대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직전교육 역시 유아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영아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질적 보육이 강조되고 평가인증이 도입되면서 영아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구성이 영아교사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장영희(2007)는 영아뿐 아니라 교사의 보육을 지원해 주는 물리적 환경도 함께 구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는 시설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미라, 배소연, 이영미(2011)에 의하면 영아 보육에서 어린이집 시설과 공간의 설계 등 물리적 환경 구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권경숙과 박지영(2005)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구성은 영아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아 보육시설의 실태를 보고한 연구(유연화, 최경애, 이정란, 2004; 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2013); 조혜진, 2007; 최은아, 2007)들에 의하면 조밀한

공간에서 활동할 경우 공격성이 증가하고 또래와 잦은 싸움을 한다고 하였으며, 낮잠과 기저귀 갈기를 위한 공간 및 개인장 등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하고 역동적인 만 1세 반 영아를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은 하루 일과 활동을 수행하는 영아교사의 역할수행에도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 초기적응과 관련하여 영아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윤숙과 조희숙(2011)은 부모가 교사에 대해 갖는 불신감, 학부모의 협조부족으로 영아교사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박소윤과 서현아(2015)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어린이집 일과운영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기심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기에는 부모들의 불안감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 영아일수록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여 자녀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사-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증가하는 가운데 종종 발생하는 학부모의 불신과 의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정서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영아교사가 보육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가 영아의 질적 보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영아교사의 정서적 어려움을 분석한 여인우(2014)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는 영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문혜련과 강재희(2015)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와 육체적 노동 그리고 보육을 전공한 교사와 보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 간의 비교로 인한 회의감이 교사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박은정(2003)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 보육교사들은 교사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시간의 근무와 박봉 등 낙후된 근무

여건으로 인해 내적, 외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강이슬과 김민경(2011)의 연구에서 영아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영아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없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아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을 밝히려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고효자, 2009; 김옥주, 조혜진, 2010; 김유진, 2003; 정영실, 2011), 교수효능감이나 직무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지표들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순애, 심수향, 2014; 김연아, 김경은, 2012; 민혜영, 윤미정, 2011),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이직율(박정자, 2013; 신경주, 2011; 장진성, 2011; 한유미, 오경숙, 2010)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영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영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운영, 배지희, 김은혜, 2013)에 의하면 영아교사는 영아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영아교사를 비전문직으로 생각하는 편견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짐을 경험할 때 직무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 영아특성과는 다른 규정이나 이론을 고려해야 하거나 신체적인 소진을 느낄 때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영아교사가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는 보육의 질과 영아교사의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들은, 영아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원인으로 영아교사의 전문성, 지식 및 경험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학부모와의 관계, 어린이집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 중 영아의 발달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하루일과 전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일과와 관련하여 영

아교사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로는 배변훈련, 점심식사, 낮잠지도와 같이 하루일과 중 특정 시간에 주목하여 교사의 어려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강경희, 전홍주, 2012; 노희연, 2008; 이슬기, 2008)가 있었으나, 등원에서 귀가까지 하루일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영아교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또한, 영아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 만 2세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만 1세 영아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은 활발하지만 자조 능력은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의 의존도가 높다. 이와 같이 움직임이 활발하고 역동성을 지닌 만 1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사가 하루일과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하루 일과 활동과 보육환경을 중심으로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영아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만 1세 영아반

보육시설의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영아를 만 1세 반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반에 대해 2015년 4월 기준, 2013년 1월생부터 2013년 12월생 영아로 구성된 영아반으로 정의하였다.

2) 하루일과

하루일과란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하루 동안 놀이하고 양육 받으며 지내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때 일과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해준다(장영희, 2007). 어린이집 하루일과를 구성하는 내용, 순서, 시간의 양은 영아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원 및 맞이하기,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오전 자유활동, 기본생활지도(점심 및 간식, 낮잠 및 휴식, 배변 등), 실외활동, 오후 자유활동, 귀가지도 등이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해당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보육진흥원, 2015). 본 연구에서는 하루일과를 등원해서 하원 할 때까지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관찰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만 1세반 영아의 발달적 특성

영아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영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가와 같은 발달의 과정이나 원리, 연령에 따른 영아기 발달수준에 대해 인지할 경우, 영아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희진, 김언아, 홍희란, 2004). 따라서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만 1세 반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영아의 발달에 맞는 놀이를 계획, 제공하고 영아의 정서적 심리 상태를 이해하며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만 1세 반 영아는 발달 과정에서 다른 시기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시기는 애착의 형성, 대상 영속성 개념의 발달, 자기중심적 사고, 대소변의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영아의 발달과업 성취 경험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에 영향을 주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홍윤정, 2004). 신체적으로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대상에 접근하여 탐색하고 놀이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자신의 주변을 탐색하는 영아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며, 자신이 알아내야 할 대상이지만 아직 대·소근육의 조절과 협응능력이 부족하여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장영희, 2007).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과 주 양육자에 대한 의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며, 애착의 형성, 분리 불안과 같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극심해지기도 한다(조복희, 2014). 이와 같이 다양한 변화를 겪는 만 1세 반 영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는 영아의 영역별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신체 발달

영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2014)에 의하면, 생후 1년이 지나면 영아의 체중이 출생 시기의 3배 정도로 증가하고, 생후 2년 동안에는 출생 시의 약 3.8배로 성인 체중의 1/4 이 된다. 신장은 남아가 여아보다 큰 편이며, 신장의 성장은 체중에 비해 그 속도가 느리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신체 발달 중 대근육 운동의 기능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생 시기에 누워서 뒤집기조차 할 수 없었던 영아는 생후 2년 사이에 기고, 서고, 걷고, 뛰는 등 운동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독립적이고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해진다(박성연, 도연심, 2005). 영아는 이때부터 돌아가고 올라가고, 장애물을 넘어보는 등 기어 다닐 때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모험과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욕구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즉, 이행 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영아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곽금주, 성현란, 자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 2005). 그러나 영아는 갑작스러운 멈춤이나 속도 조절, 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윤선화, 2014).

소근육의 발달은 손 조작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영아는 소근육의 발달로 작은 사물을 잡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되면서 주위의 사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강경미, 백경숙, 2005). 14개월이 되면, 영아는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쌓거나 병뚜껑을 여는 등의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진다. 18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영아는 혼자서 숟가락과 포크를 이용하여 음식을 입에 넣는 연쇄 동작을 습득하고, 혼자서 밥을 먹

고 옷을 입는 행동을 하게 된다. 19~20개월이 되면 영아는 4개의 블록으로 탑을 쌓는 것이 가능하고, 23~24개월이 되면 영아는 6개 정도의 블록으로 탑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블록을 수직으로 쌓는 것은 눈과 손의 협응력과 힘 조절이 성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장영희, 2007).

이와 같이, 만 1세 영아기에는 신체운동 능력이 증진되면서 놀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영아기는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균형을 유지하려는 능력과 운동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보건복지부, 2014). 즉,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영아의 발달적 측면의 영향이 크다. 영아는 신체조절 능력의 미숙으로 넘어짐, 추락, 끼임, 부딪히기 등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공간 지각력이나 위험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예측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윤선화, 2014). 이에 따라, 영아교사는 영아의 이러한 신체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가 부딪치거나 다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미리 체크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하루일과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직접적인 행동이나 체험을 통하여 영아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2) 언어 발달

언어의 사용은 다른 동물과는 구분되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의 언어발달은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생리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영아는 주변과의 소통을 위해 언어를 습득하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곽금주, 김연수, 2014).

영아기의 언어발달과정에 있어, 언어를 획득하는 시기와 획득 과정은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난다(조성연, 이정희, 천희경, 심미정, 황혜정, 나종혜, 2005). 18~24개월에는 500여개의 낱말을 구사할 수 있으며, 언어획득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24개월 전후를 언어발달의 ‘폭발적 팽창 시기’라고 한다(장영희, 2007). 이 시기 영아는 언어를 이용하여 의사 표현을 능숙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짓과 발화를 동시에 사용하여 의사 표현을 한다.

영아의 언어발달에 있어 영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영아는 놀이 상황에서 교사에게 다양한 비언어적인 신체적 접촉행위를 보이기도 하는데, 김경란(2006)은 영아의 이러한 행동은 교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요구, 휴식과 위로를 요구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영아들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울기, 소리 지르기, 밀치기, 때리기, 물기 등 다양한 형태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영아교사는 이러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이한영, 2005). 이때 교사들이 영아들의 미숙하고 불완전한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말해주는 과정을 통해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이한영, 2005). 또한, 장유경(2004)은 생후 10~17개월 미만의 초기의사소통 상황에서 가리키기와 같은 지시적인 몸짓, 말놀이나 게임을 표현하는 관습적인 몸짓 외에도 사물을 나타내는 참조적 몸짓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지연(2004)은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어휘를 습득하는 데 있어 교사의 피드백과 질문하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영아교사는 영아의 언어발달을 위해 영아들의 몸짓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심을 갖고, 영아의 행위에 대해 반응하거나 질문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언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문장을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매체와 경험 속에서 영아의 언어가 효과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인지 발달

영아의 발달은 각기 다른 영역의 발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인지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더욱 정교해지고, 적절한 인적·물적 환경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를 탐색하고 사고하며 선택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강경미 외, 2005).

만 1세 반 영아는 인지발달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나타난다. 이 기간 영아는 적극적인 탐색자로 인과개념이 획득하면서 문제해결력이 향상되고, 대상영속성 개념과 표상적 사고의 발달로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져 가상놀이, 상징놀이, 지연모방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이다(이기숙 외 2015). 3차 표준보육과정(2013)에서는 이러한 영아의 인지발달에 대해 주변 세계지각하기, 반복하여 탐색하기 등 탐구하기 영역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아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 사물이 나타내는 즉각적인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스스로 내부에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김유정, 염지숙, 손은경, 2004), 이 과정에서 영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시행착오적인 행동을 반복하기도 한다.

Piaget(1977)는 영아기에 대상영속성 개념이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이를 통해 물리적 개념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대상영속성 개념이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대상의 본질과 행동에 관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을 말한다. 즉, 물체가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 물체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8~12개월의 영아가 다른 사람이 감춘 물건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여러 번 옮겨가며 숨기면 찾을 수 없는 데 반해, 12~18개월의 영아는 물건을 여러 번 옮겨도 그 물건의 이동과정을 주시한 경우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본 장소에서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영아가 물건의 이동과정을 보지 못했을 경우, 물건을 찾지 못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영아에게는 짐작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장영희, 2007). 따라서 대상영속성 개념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변 세계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라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정옥분, 2014).

18~24개월의 영아는 자신을 타인과 혹은 사물과 구별하기 시작하지만, 타인이 자신과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감정표현에 부적절하게 반응하기도 한다(곽금주 외, 2005). 영아가 또래를 때리고 나서 야단을 맞은 후 다시 또 때리는 행동은 자신이 때리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인지적인 이해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최석란, 2002).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영아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약화되고, 영아는 타인의 생각과 관점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게 된다.

24~30개월이 되면 영아의 인지발달은 전조작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의 영아는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 단계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표상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이다. 이전 연령의 영아는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사물에 대한 인지작용이 가능하지만,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상태를 내재적으로 표상하는 심상을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영아는 내재적인 심상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델의 행동을 기억한 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발적으로 재현하는 모방인 지연모방이 가능해진다. 이 시기 영아는 표상 및 기억능력의 발달로 양육자의 의도를 기억하여 사회적 기대에 따라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영아의 자기조절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가 영아에게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일관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는 영아의 인지발달을 돕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영아의 가장놀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4) 사회·정서발달

사회·정서발달의 개념은 영아가 또래와 타인을 이해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인식하게 된다. 영아가 울면 안아주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양육자의 반응에 따라 영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아의 정서발달은 다양한 정서의 출현, 자기 정서 인식 발달, 타인의 정서 인식, 자신의 감정조절 등을 거치면서 발달하게 된다(김혜금 외, 2015). 영아초기에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표현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진다. 그러나 영아의 정서발달은 언어나 신체발달과 같이 발달적 순서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양옥승, 2015).

영아의 단계별 정서발달 과정을 보면, 신생아의 정서는 미분화된 흥분 상태이다. 이기숙(2015)에 의하면, 12개월 이후 영아의 정서는 처음의 기본정서 외에도 놀람, 의기양양, 좌절, 분리불안, 낮가림의 복합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 또한 18개월 이후 영아의 정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당황, 애정, 질투심, 저항, 경멸과 같은 정서가 나타나고, 24개월 이후에는 자신의 감정과 성인의 감정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등 타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정서가 다양한 표현양식을 갖게 되는 것은 기본정서, 상황적 맥락, 발달하는 인지와 언어능력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영아교사는 영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적합한 상호작용과 교육내용을 제 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발달을 촉진한다. 특히 영아기에 주 양육자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며(Erikson, 1968), 김호인(2010) 은 영아가 또래와 타인을 이해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고윤희(2012)는 사회·정서발달을 정서사회화(emotion socialization)라고 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점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피볼 필요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미숙(2007)은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 문화, 규범과 같은 행동양식을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고 보고, 인간은 사회구성 원으로서 성숙하고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성 발달의 핵심적인 기능은 타인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맺는 능력이며, 이는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사회·정서발달을 사회관계요인으로 보고 자기존중, 정서인식과 조절,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식으로 정의한다(보건복지부, 2013). 양옥승(2006)은 사회·정서발달의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조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인지조절과 정서조절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Bowlby(1979)는 초기 부모-자녀의 양자 관계를 영아가 타인의 신호를 해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어 갈 수 있는 사회·정서발달의 핵심 기제로 설명하고 있다. 부모 자녀의 초기 애착관계가 이후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행동특성이 세대 간에 지속됨으로써 애착이 세대 간 전이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영아기 동안 어머니와 함께 공유하는 다양한 물체 놀이 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정서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며 어머니는 영아와의 놀이에서 영아가 부정적 정서 상태를 벗어나 긍정적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영아의 관심을 지도

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Kopp, 1989).

이러한 양자 관계로부터 영아는 자기조절 행동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능력을 내면화하게 된다. 즉, 부모와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낯선 사람에게 더 협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애착의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에 안정적으로 애착형성이 되지 못한 아동은 깊은 수치심, 강한 분노, 만성적 불안, 극단적 고립과 절망을 경험함으로써 매우 낮고 불완전한 자아감을 형성하게 되어 우울하거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문제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영아는 이미 애착을 형성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불안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조복희, 2015). 분리불안은 생후 8개월부터 증세가 나타나 친숙한 양육자와 떨어지면 힘들어하고 한시도 떨어지길 거부하지만, 18개월 이후부터는 애착이 형성되어 분리불안이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영아의 인지발달과 탐색활동이 증가하면서 엄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기숙 외, 2015). 이러한 영아의 분리불안 양상은 주로 양육자의 행동이나 상호작용 방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영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살피는데 이때 나타나는 양육자의 정서조절 반응은 영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도록 돕는 기준이 된다. 또한 조성연(2005)은 영아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가지고 있는 기질이 드러나면서 성장하는 동안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아의 개별적 특성인 기질은 타고난 것이지만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 교사와 영아의 관계 형성, 영아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전홍주, 최유경, 최항준, 2013).

이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아의 애

착, 기질, 분리불안 등과같이 다양하지만,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해서 부모, 또래, 교사 등 인적환경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며, 영아가 언제나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영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일관된 양육과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만 1세 영아반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하루일과 구성

1) 만 1세 영아반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영아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행동, 의식, 정신 건강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외적 요인들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백지현, 1997). 특히 영아의 연령이 어리고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이 접하고 있는 보육환경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김민성(2007)은 안전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영아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탐색하며 새로운 도전을 할 뿐 아니라 교사들도 안전하게 영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잘 마련된 물리적 환경은 영아의 발달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촉진하는 역할 뿐 아니라 교사의 보조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양옥승 외, 2015).

물리적 환경은 영아가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영아기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발달에 적절한 경험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조복희, 2015). 박은영(2008)은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은 정해진 교육목표에 접근하여 행동

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적 조건의 총체로서, 영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성장을 촉구할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유인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보육평가 지침서에서도 실내·외 보육환경이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하며 유아의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보육진흥원,2015).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구성에 있어서 보육실의 크기 역시 중요하다. 최근에는 영아를 위한 시설을 설계 하는 데 있어 ‘발달에 적합한 디자인(DA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Des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장영희, 2007). 발달적 차이가 큰 영아기에 개별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흥미, 욕구 등이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에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아의 신체적 크기를 고려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스스로 운동능력을 발휘하여 도전해 보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실의 크기는 아동 1인당 2.64㎡로 한다(보건복지부, 2013). 한편 최목화(2002)는 실내공간에서 보다 좋은 활동 프로그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는 크기는 영아당 5㎡이며 이러한 크기는 아동의 부수적인 활동과 교사 활동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Rohe와 Patterson(1974)은 자유놀이 시간에 아동 1인당 전용면적과 놀잇감의 수에 따라 아동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한 결과,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이 좁고 놀잇감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아동들의 부정적 행동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구성은 활동내용에 따라 일상생활영역과 놀이 활동을 위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생활영역은 영아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사물함 외에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씻고,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 놀이 활동을 위한 영역은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흥미영역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4). 특히 일상생활영역에

서 만 1세의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영아의 일상영역을 위한 환경구성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화장실을 들 수 있다. 화장실은 보육실과 연결되도록 배치하여 영아교사가 영아들의 대소변을 해결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위생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을 수 있게 해야 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영아들은 유아들과 달리 이동능력이 부족하므로 보육실 내에서 모든 기본 생활행위가 해결되도록 보육실 내부에 화장실을 배치하여 배설 및 목욕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최안나, 2007). 화장실의 물리적 시설은 영아에게 배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밝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화장실 문은 영아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도록 격자 모양이 바람직하며 폐쇄장치가 없어야 한다(장영희, 2007). 또한, 영아의 신체 크기에 맞는 변기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김민성, 2007). 영아를 위한 화장실에는 배변훈련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실외놀이를 할 경우 몸을 씻을 수 있는 목욕시설 영역이 있어야 한다. 기저귀 갈이 영역은 싱크대 바로 옆에 설치하여 기저귀를 갈아 준 후 바로 씻기와 닦기 등의 위생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저귀 갈이 대 선반에는 기저귀, 화장지, 로션과 파우더, 비누 등을 준비해 두어 교사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장영희, 2007).

영아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박은영(2008)은 어린이집 열악한 물리적 환경으로 협소한 보육실, 놀잇감 부족, 불편한 생활시설을 꼽았으며, 좁은 보육공간은 영아의 일상생활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최효경(2006) 역시 영아용 실내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 등의 시설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은아(2007)은 실내놀이터, 영아반 실내화장실 확보, 낮잠실 확보율이 낮다고 보고하면서 영아를 위한 시설 확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낮잠실에 대해서는 영아들은 수면시간의 비중이 크므로 수면 때마다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자려는 아동과 잠을 자지 않으려하는 아동이 섞여 있어 낮잠 자는 공간과 보육활동 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최경애, 2002; 최안나, 2007).

따라서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구성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개인차, 흥미, 욕구 등을 반영해주는 실내 환경구성뿐 아니라 영아의 생리적 욕구, 건강에 기초한 생활공간의 기능과 교육 및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김정미, 2002). 또한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구성은 만 1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구성뿐만 아니라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교사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설계도 필요하다.

2) 만 1세 영아반 하루일과

영아의 하루일과에 대하여 장영희(2007)는 영아가 하루 동안 놀이하고 양육 받으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 정의하고, 이는 정해진 시간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해 준다고 보았다.

어린이집 하루일과 운영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이다.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월~금요일: 07:30~19:30, 토요일: 07:30~05:30)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만 1세 영아반의 하루일과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개별 활동 및 집단 활

동 등이 모여 구성된다(박찬화 외, 2011). 우리나라에는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이 있어 기본적인 보육의 내용과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마다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어린이집에 맞는 하루일과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평가인증 지침서(2015)에는 실내자유놀이 2시간 30분 이상, 실외자유놀이 한 시간 이상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나머지 하루 일과의 운영은 전적으로 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하루일과는 등원, 오전 자유놀이,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기본 생활습관지도(점심 및 간식, 낮잠 및 휴식, 배변 등), 실외활동, 오후 자유선택활동, 귀가지도 등이 포함되는데 연령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하루일과는 기본적으로 각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신체 리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영아의 흥미, 요구, 반응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집단 활동보다 개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육활동보다 일상적 양육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한다(황해익 외, 2015). 일과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모나 교사가 볼 수 있는 곳에 하루일과를 적어 교사에게는 활동 시간을 상기시켜 주고, 부모에게는 게시되어 있는 표를 통해 영아의 하루일과를 알리도록 한다(이은혜, 김온기, 이미화, 이재선, 1995).

영아는 하루일과를 통해 교사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또한, 하루일과 속에서 영아는 또래와 지속적으로 놀이하고 또래 간 갈등을 해결하며 삶에 필요한 기술과 방식을 습득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배우게 된다(이경미, 2009).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귀순(2006)은 적절한 하루의 계획을 통해 영아를 위한 영양공급과 그에 따른 청결한 환경 제공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반의 일과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략으로, 영아는 대집단 활동을 하기에는 어리기 때문에 개별적 상호작용과 배려를 더 필요로 하고, 매일의 활동시간은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한다 (삼성복지재단, 2003).

따라서 영아반 교사는 영아반의 일과를 운영함에 있어 영아의 개별적인 욕구가 배려되는 따뜻한 보호와 교육적 경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3. 만 1세반 영아교사

1) 영아교사의 역할

어린이집에서 하루 일과동안 영아교사의 역할은 영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영아에게 어떠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영아의 경험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아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아교사의 역할은 보호, 교육, 전문적 자질을 갖추는 것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영아교사는 유아교사에 비해 보호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영석(1998)은 유아교사에 비해 영아교사들에게 강조되는 역할을 제시하면서 영아가 가정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편안함, 안락함,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면 영아교사는 영아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영아와 따뜻한 신체 접촉을 수시로 하여 영아의 심리적 안정감을 발달시키고 영아와 일대일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 개인의 발달과 학습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나 유아교사의 역할은 비슷하지만

영아반 교사에게 중점을 두는 것은 영아의 식사량, 선호하는 음식, 기저귀 가는 시간, 잠투정과 잠자는 시간 등과 같이 영아 개인의 요구에 기초한 일상적인 양육을 강조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양옥승 외 2015). 같은 맥락으로, 조성연(2006)은 영아교사의 역할로서 영아와 애착형성하기, 영아발달을 돕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상호작용하기, 개별적 특성 고려하기, 물리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경험의 기회 주기,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강조하였다. 김수진(2002) 역시 영아교사의 역할로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 주기, 적절한 교육내용과 효율적인 교수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각 상황에 적절한 의사결정하기, 새롭고 다양한 학습 환경 제공하기, 영아의 발달 상황 평가하기 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의 보호 역할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아교사의 역할로서 교육을 꼽을 수 있다. Decker와 Decker(2004)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유아를 보호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의 이중적인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황해익(2015)에 의하면, 영아교사는 양육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경험을 주기 때문에 교육적인 자극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영아가 발달이 지체되거나 결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육진흥원(2015)에서도 영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영아의 발달에 필요한 보육과정을 수립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교육자로서 영아들의 능력을 믿고 비계설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평가자로서의 역할,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역할, 부모와의 상호작용, 교직원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동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경림(2005)은 영아교사의 역할을 대리 부모로서의 역할,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환경조성자로서의 역할, 평가자로서의 역할 등

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보호자나 양육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영아를 지도하는 적극적인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함께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사는 영아의 등원 맞이하기로 시작하여 신발과 옷 벗기, 손 씻기와 양치하기 등의 자조활동, 간식과 식사하기, 기저귀 갈기와 대소변 가리기, 낮잠 자기와 휴식하기 등의 일상적 양육, 자유롭게 탐색하기, 실내놀이하기, 실외놀이하기, 산책하기 등의 교육적 활동, 영아의 귀가 후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부모와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1995)은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영아교사로서 개인적, 전문적 자질이 요구되며, 개인적 자질로는 교사 개개인의 사람됨과 관계되는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전문적 자질로는 영아교사로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꼽았다. 황해익(2015)은 영아교사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 보육에 관한 소명감이나 직업윤리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영아교사로서 보육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이론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보육에 관한 지혜와 가치관을 말한다. 양옥승(2006)은 어린이집에서 영아교사의 역할을 보살핌과 가르침의 역할로 나누고, 영아교사는 영아의 어려운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해야 하며, 개별 영아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사회와 교육체계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가변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영아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2) 영아교사의 근무환경

영아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근무환경은 근무시간, 교사와 영아의 비율, 개인 시간 확보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환기, 소음, 채광, 온도, 공간배열 등의 물리적 환경도 근무환경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영아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2015)에 따르면 근무환경에 대해 근무시간, 영아교사와 영유아 비율, 후생복지(급여,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휴가, 각종 수당, 근로계약, 경력관계), 보수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2014)에서도 영아교사의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아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에 근무 연장 시간은 시설장, 영아교사가 교대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일 보육시간에 대한 기준을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공휴일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영아교사의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를 원칙으로 하고 3시간(07:30~09:00, 18:00~19:30)은 시설장, 영아교사 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5). 교사와 영유아 간의 비율을 보면 만 0세는 영아 3명당 교사 1명, 만 1세 영아 5명당 교사 1명, 만 2세 영아 7명당 교사 1명을 규정하고, 각각의 인원만큼 초과할 때마다 교사 1명씩 증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15)에 제시된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

무관리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보면, 첫째,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를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 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다. 셋째, 고용,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넷째,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섯째,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해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 별표 2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3조 관련)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영아교사의 환경 중 부모, 교사, 또래집단 지역사회 인사 등과 같은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인적 환경과 건물, 교재, 내·외부의 각종 설비, 교재, 교구 등의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은 영아교사에게도 영향을 준다(신희연, 2005). 박은정(2003)은 영아교사의 직무의 효과나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직업에 알맞은 근무환경의 정비가 필수 요건이며, 영아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근무 부담의 과중은 교육과 보육활동의 효과와 능률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히 보육교사의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황해익 외, 2015).

그러나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3)에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하루 총 9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일과운영 시간은 10.2시간으로 어린이집 일과운영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었다. 또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3)에 따르면, 평균휴식시간은 26.19분으로 나타났고 휴식시간이 없다는 비중도 40.6%에 달했다. 교사들은 휴식 없이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 잦은 야근, 주말출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무가 집으로까지 연장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육체적 소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보다는 한 주에 몇 번이라도 정시퇴근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 영아교사는 일과운영 지속소가 필요한 활동으로 하루일과 시간을 언급하였다. 일과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보육시간 과다가 6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기본생활지도와 대소집단활동의 어려움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권미영, 조혜주, 2012).

이를 종합하면, 영아교사의 복무와 관련한 원칙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현실적인 여건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선행 연구

어린이집 보육연령이 낮아지고 기관의 종일 보육 형태가 늘어나면서 영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영아보육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초임교사들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자질이 부족하여 가르치는 일이 내포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연구한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2010)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와 다른 영아 고유의 발달적 특성과 유아중심의 직전교육과 영아보육 경험 및 지식부족을 꼽았으며,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진희와 임진형(2004)의 영아전담보육 교사의 어려움과 요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월령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요구하였고, 대학교육에서도 영아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순환과 전셋별(2010)은 영아교사가 직전교육만으로 보육현장의 다양성을 살피면서 적절한 교수행위의 실천이 어렵다고 하였고, 박남희, 이대균(2014)은 영아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영아교사의 전문성 부족은 영아의 의사소통, 기본생활지도, 규칙과 허용의 경계 짓기, 훈육, 학부모와의 관계 등과 같이 영아교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탁정화, 황해익(2012)의 연구에서도 영아교사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영아교사의 역할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강경희, 전홍주(2012)의 연구에도 식사지도과정에서 영아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아교사의 전문성은 초임영아교사만이 겪는 어려움만은 아님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조혜진(2009)의 연구에서는 영아교사를 보육한 경험이 있는 경력교사는 영아를 지도하는데 있어 영아의 문제행동 훈육 및 영아 안전지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학부모의 비난과 관계악화 등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또한 여인우(2014)은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정서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는 영아교사들이 영아들을 돌보는데 있어 아이가 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낮은 처우와 육체적 노동 그리고 의심하는 사회적 인식, 전공과 비전공간의 비교로 갖는 회의감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영아초기적응과 관련한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분석한 박소윤과 서현아(2015)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신뢰부족과 영아적응에 대한 이해부족,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김윤숙과 조희숙(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갖는 불신감과 불안감 그리고 초임교사라는 꼬리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서 분리불안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불신과 의심에 대한 눈초리, 과도한 요구, 영아교사를 아이돌보는 보모로 여기는 태도가 영아교사의 어려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영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영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보살핌에 대한 교육적인 활용방법, 문제 상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부모교육, 직무교육, 새로운 자극과 창의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아교사의 어려움 관련 연구에서 신수진(2015)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영아의 문제행동지도, 영아의 짧은 주의집중,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육 상황에서 일일활동계획과 실행 간의 차이에서 영아의 개별요구를 수행하느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다수 영아를 보육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성은영과 최승연(2015)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로 영아의 표현 언어의 한계, 영아의 월령에 따른 급격한 행동 변화와 편차를 꼽고 있다.

그 외에도 영아 질적 보육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유연화, 최경애, 이정란(2004)의 연구에서는 협소한 보육실과 물리적 보육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

였고, 지나치게 집단적 보육과정운영과 일과지도로 영아교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영아보육의 질적 평가에 대해 분석한 김수진(2002)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보육환경이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밝히고 영아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영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아 질적 보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밝히고 영아교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진 연구들도 볼 수 있다.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고효자(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배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아교사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아동, 업무, 학부모, 경제적 안정을 꼽았으며, 영아교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수상향조정,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조하였다. 교수효능감이나 직무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지표들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김순애와 심수향(2014)의 연구에서는 영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이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제적 요인, 학부모, 행정업무라고 하였고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 교사의 교수 효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영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영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운영, 배지희, 김은혜, 2013)에서 영아교사는 심리적인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직무스트레스를 모두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영아교사가 겪는 심리적인 직무 스트레스로는 영아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영아반 교사를 비전문직으로 생각하는 편견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짐을 경험할 때라고 하였고, 신체적 스트레스로 영아반의 특성과는 다른 규정이나 이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제기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밝히고 영아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에서 학부모, 사회, 국가가 영아교사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사의 어려움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에 반영할 때 보육의 질 개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학급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영아교사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영아학급의 하루일과를 참여관찰하고 담임교사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1) 연구기관

본 연구자는 만 1세 영아학급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현장으로 A어린이집과 B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두 어린이집은 경기도 G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장과 교사들이 연구에 대해 개방적이고 참여관찰과 다양한 자료의 열람과 수집을 허락해 주어 본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반 하루일과를 관찰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극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관찰 대상이 교사라는 점에서 관찰하는 동안 교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현장은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자가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교사들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 A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A어린이집은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4세 혼합반 14명으로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1세반은 모두 신입 원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부터 적응프로그램에 따라 일과 운영 중이다. 총 교직원은 5명으로서 원장 1명, 학급 담임교사 3명, 조리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어린이집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A 어린이집 일반적 배경

학 급	만 1세반(코알라반)	만 2세반(사슴반)	만 3-4세반(캥거루반)
아동 수	5명	7명	14명
교사 수	정교사 1명	정교사 1명	정교사 1명
기타 교직원 수	원장, 조리사 1명		

(2) B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B어린이집은 총 정원 27명 중 현재 인원 수는 22명이다. 만 1세 두 학급, 만 2세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세 두 학급은 모두 5명씩 구성되어 있고 만 2세반은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1세 학급 행복반은 5명 중 3명이 신입원아이며, 2명은 재원영아이다. 사랑반은 신입원아 4명과 재원 영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은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으로 일과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만 1세 두 개의 반 중에서 사랑반을 참여 관찰하였다. 사랑반 교사는 A어린이집 교사와 영아경력이 비슷하고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최대한 편안하게 참여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선택하게 되었다. 교직원 구성은 원장1명과, 담임교사 4명, 조리사 1명, 기타 1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어린이집 일반적인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B 어린이집 일반적 배경

학 급	만 1세(사랑반)	만 1세(행복반)	만 2세반(기쁨반)
아동 수	5명	5명	12명
교사 수	정교사 1명	정교사 1명	정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기타 교직원 수	원장, 조리사 1명, 기타 1명		

(3) A·B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본 연구대상 A, B 어린이집 두 곳 모두 G시 아파트 관리동 2층 건물 중 1층에 위치해 있다. 먼저 A 어린이집은 만 1세 영아반 두 학급, 만 2세 영아반 한 학급, 만3-4세 유아 혼합 연령반 한 학급, 교실은 모두 3개로 되어 있다. 유희실에는 대근육 활동으로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고, 맞은편 벽면에는 역할놀이영역, 블록놀이영역, 음률놀이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그 옆에는 피아노가 있고, 한 쪽 구석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그 외 화장실, 조리실 원장실 겸 교사실이 있지만 교사들은 주로 각 반에서 하루 일과동안 생활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강당이 있으며 주로 어린이집 체육활동 및 대근육 활동실로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실외에는 실외놀이시설로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어 영아들이 점심식사 후 대근육 활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B 어린이집은 D 아파트 관리동 2층 건물 중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집 옆에는 노인정이 있고, 2층에는 관리실이 있다. 반 구성은 만 1세 영아반 보육실 2개, 만 2세 영아반 보육실 1개 모두 3개의 보육실과 화장실, 조리실, 원장실 및 교사실, 유희실로 구성되어 있다. 유희실에는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벽걸이 어항이 설치되어 있다. 한 쪽 벽면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환경 구성판이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총 3개의 모험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실외놀이 할 때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가까운

곳에 대규모 공원이 있어 자주 산책 및 자연탐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하루일과

A·B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7시 30분에 끝난다. 영아들의 등원시간과 귀가 시간은 학부모의 요구와 직장 다니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일하며 토요일은 선택적 보육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 보육을 희망하는 영아가 거의 없어 교사는 토요일 보육을 위해 출근하지 않는다. 대신 원내 행사가 있을 경우 출근하여 행사준비를 한다.

하루일과에 관한 관찰은 한국보육진흥원(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원, 실내자유놀이, 급·간식, 집단 활동, 전이, 씻기 및 용변, 실외자유놀이, 낮잠 및 휴식, 특별활동, 귀가,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의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만 1세반 하루일과는 전체적으로 시간과 내용에서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표 3>와 같다.

<표 3> A·B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일과표

시간	활동내용
07:30~10:00	등원 및 통합보육
10:00~10:30	화장실 가기 및 오전간식
10:30~11:00	실내자유놀이 및 대.소집단활동
11:00~11:20	정리정돈 및 화장실가기
11:20~12:10	실외놀이 및 손씻기 (특별활동)
12:10~13:10	점심식사 및 이닦기
13:10~15:00	낮잠
15:00~15:30	화장실 가기 및 오후간식
15:30~16:50	실내자유놀이
16:50~17:30	실외놀이(산책) 및 손 씻기
17:30~19:30	통합보육 및 개별귀가

(1) A어린이집 코알라반 하루일과

A어린이집은 오전 8시경에 2명의 등원으로 하루일과가 시작된다. 이후 본격적인 등원은 9시부터 시작하여 9시 30분이면 전원 등원하는 편이다. 때로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등원 시간이 변동되기도 한다. A어린이집은 아침당직, 저녁당직을 세 명의 보육교사가 일주일씩 돌아가며 근무한다.

등원시간에는 주로 유희실에서 통합 보육이 이루어지며, 교사들은 유희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루일과 활동을 준비하기도 한다. 현관의 벨소리를 들으면 어린이집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 아이들을 맞이하는데, 주로 각 반 담임이 아이들을 맞이한다. 등원시간 각 반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맞이하려 나갈 경우 나머지 교사가 먼저 등원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A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매일 규칙적으로 일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이 되기도 한다. 영아의 귀가는 4시부터 시작되며, 부모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오는 순서대로 귀가를 한다. 4시 30분부터는 켄거루반에서 통합보육으로 이루어진다. 귀가 시간에도 아침등원과 동일하게 담임교사가 영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가서 직접 학부모에게 인계한다. 이때 영아교사는 부모에게 영아의 어린이집 생활에서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학부모, 영아와 인사를 나눈다. 5시 30분이 되면 당직 교사가 남아 있는 영아를 돌보는 역할을 하며, 나머지 교사는 교실을 대청소한다. A어린이집은 직장이 멀리 있는 맞벌이 부모가 있어 7시경 귀가지도가 마무리 된다.

(2) B 어린이집 사랑반 하루일과

B 어린이집은 영아들이 많고, 맞벌이 부모가 있지만 주로 직장이 가까이 있거나, 친척의 도움으로 등원시간이 대체로 늦다. 첫 등원하는 영아는 8시 30분이며 오전 10시 이후까지 등원이 계속된다. 당직교사는 8시 20분에 출근을 하여

원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나머지 교사들은 8시 40분까지 전원 출근한다.

아침등원시간에는 주로 유희실에서 통합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영아가 등원할 때 담임이 현관으로 나가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 사이 나머지 교사가 돌보는 역할을 한다.

B어린이집 사랑반은 일주일에 세 번의 특강이 이루어진다. 사랑반은 학부모의 동의하에 특별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 이루어진다. 화요일에는 10시 30분에 음악활동, 수요일에는 11시 30분에 체육활동, 금요일에는 12시에 오감활동을 한다. 영아와 교사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강을 위해 하루일과 활동들을 변경한다. 주로 특강시간은 30분 정도 이루어지고,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합치면 40분 정도 소요된다.

사랑반 영아의 점심시간과 낮잠시간은 특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된다. 귀가시간은 4시부터 시작되지만 거의 5시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B 어린이집은 5시 30분부터 통합 활동이 진행되며 당직 교사가 통합반 영아들을 돌보는 사이 나머지 교사가 어린이집 청소를 한다. B 어린이집은 6시가 되면 거의 귀가가 마무리 되고, 부모의 상황에 따라 6시 20분에 모든 영아가 귀가한다.

3) 영아교사

교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게 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며 교사들마다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배치하여 어린이집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A 교사의 출근시간은 보통 8시 40분까지 이며 당직교사는 7시 40분까지 출근을 한다. 일찍 출근한 교사는 일찍 퇴근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 하에 조정을 하고 있었다. B교사의 출근시간은 당직교사는 8시 20분까지이며, 나머지 교사는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한다. 일반적 배경은 <표 4>과 같다.

<표 4> 교사의 일반적 배경

기관명	교사 명	나이	결혼여부	학력	경력
A어린이집	김지영 교사	36세	기혼	전문대졸 유아교육전공	10년
B어린이집	김소정 교사	40세	기혼	4년 대졸 보육교사자격취득	7년

※ 교사의 이름은 본연구의 특성상 가명이다.

(1) A어린이집 만 1세 담임교사

김지영 교사는 A어린이집 주임교사이며 교사경력은 10년이다. 영아반 담임은 총 5년의 보육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지영 교사의 특징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유치원에서 2년의 근무경험이 있고 결혼 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4년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다. 오랜 경력으로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으며 평가인증에서 영아 상호작용이나 보육계획 및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김지영 교사는 오랜 교사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영아들을 보육할 뿐 아니라 유능한 교사의 모델링이 되어 다른 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2) B어린이집 만 1세 담임교사

김소정 교사는 B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7년의 경력이 있다. 김소정 교사는 B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 어린이집에서 2년,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으로만 4년의 보육경험이 있다. 김 교사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였으며 두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김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에게 항상 조용한 말투와 미소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김 교사의 특성은 영아들과 빠르게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4) 영아

<표 5> 영아의 일반적 배경

기관명	평균월령	성비율	기관에 머무는 시간	기관의 경험
A어린이집	23개월	남아-3명 여아-2명	8시간~10시간	5명 모두 신입원아
B어린이집	22개월	남아-5명	7시간-10시간	1명 기관보육경험 있음, 4명 신입원아

A, B어린이집 만 1세반 영아들은 작년에 보육시설 경험이 있는 영아도 있었지만 모두 3월에 본 어린이집에 첫 입소하여 신입원아적응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A, B어린이은 3월 4주부터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을 마치고 표준보육과정에 따라서 하루일과를 운영하고 있다.

2. 자료수집방법

1) 예비 연구

본 연구자는 2015년 3월 17일~3월 18일까지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P 어린이집 만1세 학급과 만2세 학급을 대상으로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를 원장에게 설명한 후 만 1세 학급과 만 2세 학급의 하루일과를 각각 참여관찰 하였다. 만1세반은 5명, 만2세반은 1명이 결석하여 6명이었으며 예비관찰을 통하여 어떤 연령을 연구대상 학급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담임교사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였으며 영아의 등원에서 하원까지 하루일과를 관찰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만1세 학급 담임교사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월은 영아의 적응기간이어서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있었으며 총 5명의 영아 중 3명이 신입 원아였다.

현관 벨이 울리고 햇님반 교사가 노랑반 교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김 교사는 교실에서 조금 전 등원하여 울고 있는 혜원이를 안고 달래고 있다. 김 교사는 우는 영아를 내려놓은 뒤 햇님반 교사에게 부탁을 하고 지원이를 맞이하러 나간다. 혜원이는 김 교사가 내려놓자마자 더 심하게 울며 교실 밖으로 나가는 김 교사를 따라 가려 한다. 파랑반 교사가 혜원이를 안아주자 더 심하게 저항하며 운다. 김 교사는 지원이에게 반갑고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였지만 지원이는 이미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목에 매달리며 집에 가자고 한다. 지원이 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버둥 치는 영아를 안고 있다. 김 교사는 어머니와 간단히 지원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지원이를 안고 지원이 가방을 들고 교실로 들어온다. 신발도 벗지 않으려 하여 신발까지 신은 상태다. 교실로 들어오는 중에도 지원이는 온몸으로 저항을 하며 발버둥을 쳐서 김 교사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 얼굴은 빨개져 있다. 노랑반은 어느새 영아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다. 김 교사는 혜원이와 지원이를 달래느라 등원하는 친구를 맞이하라, 놀이하는 동안 계속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놀이하면서 계속 "선생님!" 하고 부르는 우진이를 돌보느라 등원시간 쉴 틈이 없었다.

<2015년 3월 18일 만 1세 노랑반 아침등원-관찰일지>

영아반이다 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루 중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는 낮잠 잘 때예요. 거의 집에서 아이를 안고 재우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안아달라고 하거나 업어 달라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심지어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지요.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는 영아가 등원하면서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심하게 등원거부를 하며 울 때인데 이때는 웬지 어머니들이 교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영아는 말이 통하지 않아 보육하는데 어렵구요, 지난번에는 자유놀이 시간에 갑자기 요구를 안 들어 준다고 울면서 자기얼굴에 자해를 해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다행히 상처는 안 났지만 순간 심장이 '쿵' 하더라구요. 만 2세 담임 할 때는 몰랐는

데 1세 담임을 맡고 부터는 육체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하며 동선도 크고 많아서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2015년 3월 18일 노랑반 교사면담>

예비연구에서 노랑반 담임교사는 아침등원시간에 영아들이 엄마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심하게 울거나 등원을 거부하는 영아를 달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는 우는 영아를 안아주기도 하고, 다양한 장난감으로 호기심을 유발해 보지만 여러 명의 영아가 한꺼번에 우는 상황에서 교사 혼자서 모든 영아를 동시에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랑반 교사의 면담에서도 영아교사는 아침등원 할 때 영아들이 심하게 울 때 어머니들은 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을 보낼 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하였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는 영아들을 낮잠을 재울 때이며 이는 영아의 개별 낮잠의 요구에 따라 안아 주거나, 졸리는 영아 안아서 토닥여 주며 재우기, 업어서 재우기, 낮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영아 함께 놀아 주기 등과 같이 개별 낮잠 방식으로 재우느라 힘들다고 면담에서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영아는 자기중심적이고, 언어로 소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영아의 돌발적 행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예비연구 결과를 볼 때 만 1세 영아학급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2015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원장과 공식적인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연구 계획을 설명하고 연구일정, 연구절차, 연구방법 등이 포함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문제의 조정이나 후속관찰, 면담의 가능성이 있

음을 알리고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과 사진촬영, 동영상촬영을 할 수도 있음을 전달하였다. 원장은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를 약속해 주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인 담임교사와 연구자는 평소에 견학이나 여러 놀이 행사에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고 서로 인사를 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본 연구에서 각각 두 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한 이유는 관찰되는 만1세 학급 영아의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이 특정한 학급에 한정된 것인지 혹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이며 연구조건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환경은 유사한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1) 참여관찰

본 연구는 만 1세 학급 영아의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5년 4월 6일부터 2015년 7월 24일까지 총 16회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각각의 어린이집에 2주에 1회씩 방문하여 교사의 출근에서 퇴근까지 총 16회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을 시작한 4월 한 달 동안 본 연구자는 등원에서 귀가까지 하루일과 관찰을 통해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나가면서 반성적 질문을 하였다.

Spradly(2006)가 제시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상황을 가능한 많이 기술하는 ‘기술적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과 ‘집중 관찰(focused observation)’ , ‘정선관찰(selective observation)’ 의 3 단계로 연구의 초점을 좁혀 나가며 진행하였다. 집중관찰 단계에서는 기술적 단계에서 관찰되어 기록된 내용들을 분석한 후 관찰대상 교사의 보육의 어려움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정선관찰에서는 어린이집 하루일과 동안 교사의 어려움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알아보기 위해 보다 세밀

한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만 1세 담임교사의 하루일과에서 교사가 어떠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세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여성가족부(2007)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경미(2009)의 하루일과 세부관찰목록을 참고하였다. 교사의 모든 하루일과는 영아의 하루일과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하루일과 세부관찰목록은 만 1세 영아반 교사의 하루일과를 관찰하는 하나의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 관찰하는 동안 어린이집 보조교사로서 참여하였으며 등원에서 귀가까지 하루일과를 직접 참여관찰 하면서 교사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 반응들을 관찰하고 의미 있는 부분은 현장노트에 즉시 기록하였고,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과 보이스 레코드로 녹음을 하고 자료를 전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전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메모하였다가 다음 관찰시 연구 참여자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자료수집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심층면담

본 연구자는 만 1세 영아학급 담임교사의 하루일과를 참여관찰한 후 영아교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낮잠시간과 하루일과 마무리 시간을 활용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연구기간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의 어린이집 영아교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 면담은 1회 40분-1시간 정도씩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는 관찰된 녹화물을 전사하거나 혹은 관찰내용을 분석해 나가면서 궁금한 것들을 곧 바로 교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정리된 생각들이 맞는지 교사에게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모든 면담은 개방적 질문과 반 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면담 후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을 경우 낮잠시간, 귀가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약기하고 녹음한 후 바로 전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3) 기타자료

만 1세 학급 영아의 하루일과를 위한 보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련 행사 및 활동들은 어떠한지 알아 보기위해 연간계획안, 월간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일일보육일지, 영아관찰일지, 학부모 상담일지, 가정통신문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3개월 동안 참여 관찰한 내용과 면담한 내용 그리고 현장일지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에 대한 반복적인 읽기와 사고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찰과정 중에 기록해두었던 현장노트와 면담 과정 중에 녹음해 두었던 녹음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회상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교사의 어려움과의 관련성에 대해 교사에게도 의견을 물어 자료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딩을 위해 일반적인 도식을 미리 가지고 분석 하지 않았으며 영아의 내부자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되도록 개방적 코딩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특정 날의 일과를 중심으로 관찰이 이루어졌으므로 일과별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관찰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범주화 하는 과정에서 하루일과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교사의 어려움에 중심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교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였다.

특히 자료 분석의 과정은 귀납적 분석 단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수집된 데이터를 읽어나가면서 분석 틀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일과별 어려움의 의미 파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미들을 중심으로 하위영역들을 확인하고 상세하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기록하며 다시 데이터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침내 일과별 의미 범주화의 과정에서 총 3차에 걸쳐 정교화 되는 과정을 거쳤다. 의미와 관련된 영역을 발견하고, 이를 지지할 만한 사례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다시 사례들을 통해 불필요한 사례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추출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분석틀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관찰, 면담, 문서수집 등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구성원의 검토를 통해 자료의 의미와 분석에 대한 왜곡을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동료검토로 연구자 이외에 동료 연구자,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함께 코딩 범주를 분석해 나감으로써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의 경험하는 어려움

1) 만 1세반 영아교사 역할수행에서의 어려움

(1) 영아의 분리불안

만 1세 영아의 하루일과에서 등원시간은 교사에게 매우 중요하고 긴장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영아는 매일 반복되는 일과지만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부모와 분리불안으로 심하게 울거나 저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교사는 영아와 부모를 온화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영아의 등원을 유도해보지만 영아는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울기도 하였다. 교사는 그러한 영아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와 원장에게 등원시간에 보이는 영아의 다양한 행동적 반응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는 자신의 보육 능력이나 전문성을 평가 받는 듯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우가 진우어머니 손을 잡고 현관 앞에 서 있다. 진우는 가방을 메고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 현관까지는 왔지만 진우는 엄마 손을 끌며 “집에 가자” 라고 조른다. 진우가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 이름을 대며 친구와 놀이 하자고 권유를 하자 갑자기 어린이집 밖으로 달려 나간다. A교사와 진우 어머니는 “진우야, 안 돼. 위험해!” 하며 진우를 데리러 달려간다. 교사는 발버둥 치며 우는 진우를 안고 교실로 들어온다. A교사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땀과 함께 젖어 있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다.

<2015. 4. 17. A어린이집 등원시간 관찰>

진우 어머니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진우가 빨리 어린이집에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현재 몸이 무거우시니까 진우를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진우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더욱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진우가 매일 등원 거부를 하니깐 꼭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도 “선생님 진우가 매일 왜 그래?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엄마는 선생님이 신경 안 쓴다고 생각 할 거 아냐?” 하세요. 사실 진우는 교실에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씩씩하게 잘 놀거든요.

<2015. 4. 17. A교사면담>

등원시간 영아는 어린이집 현관에서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불안에 갑자기 어린이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영아의 어머니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어린이집에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나 매일 등원거부를 하는 모습에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 하였다.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과 진우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교사의 책임인 듯 말하는 원장의 태도에서 A교사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부족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준우는 유모차를 타고 아빠와 등원하였다. 감기에 걸린 준우는 콧물을 흘리며 손에는 비타민 캔디가 들려 있다. A교사는 코를 닦으며 준우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준우의 몸 상태에 대해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가 유모차에서 준우를 안고 내리려고 하자 큰 소리로 울며 유모차를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아빠는 시계를 쳐다보며 “사무실에 늦겠는데, 큰일 났네!” “애가 왜 이러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하며 화가 난 목소리다. 교사는 아빠에게 준우를 잘 달래 볼 테니 준우랑 인사를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불안하신지 계속 준우를 보며 “이렇게 운 적이 없는데? 오늘 왜이래?” 하신다. 준우는 그러한 아빠의 행동을 보고 더 심하게 운다.

<2015. 5. 15. A어린이집 등원시간 관찰일지>

준우 엄마는 고등학교 교사예요. 이번에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아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침에 준우를 못보고 출근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는 매일 아빠가 준우를 등원시키고 저녁 귀가 때는 엄마가 데리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마다 불안해하며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한 준우의 맘을 알고 준우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한동안 아침에 울지 않고 잘 등원했는데 오늘 심하게 우는 거예요. 요즘 준우가 감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거든요. 몸이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아빠는 준우가 울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우는 행동이 어린이집이나 교사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의심의 눈을 보낼 때 정말 속상하죠..

<2015. 5. 15. A교사면담>

부모와 분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은 그 날의 영아의 정서나 건강 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편안하게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마음을 울음으로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학부모는 영아의 등원 거부를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태도에서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소에 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특별히 영아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를 대신하여 더 애정을 가지고 보살핌에도 그러한 교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부모의 태도에서 교사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

(2) 영아의 충동적 행동 및 신체조절 미숙에 의한 안전사고의 두려움

① 자유놀이시간

미끄럼위에서 리본으로 낚시놀이를 하던 태영이와 현우가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 현우는 태영이를 힘껏 밀고 있다. 교사가 달려가서 중재를 하고 태영이를 다른 곳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태영이 얼굴을 보던 교사가 태영이를 데리고 나온다. 태영이 불이 빨강게 굵힌 자국이 보인다. 리본으로 낚시놀이를 하다가 리본에 굵힌 것 같다. 교사는 태영이 불에 약을 바른다. -중략- 현

우가 자동차를 뽕뽕 밀고 달리다 걸어가는 윤지와 부딪치면서 앞으로 넘어져 현우 이마가 빨강게 부풀어 오른다. 교사는 얼음 팩을 가져와서 찜질을 하고 연고를 바른다. 현우에게 자동차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방법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현우는 언제 다쳤느냐는 듯 또 뽕뽕 달린다.

<2015. 5. 26. B어린이집 실내자유놀이 관찰일지>

자유놀이시간은 교사가 제일 힘든 시간이죠. 1세 아이들의 특성들 있잖아요. 절대로 나눠 갖지 못해요 양보도 못하구요, 똑같은 장난감인데도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 해요. 정말 똑 같거든요. 그러면서 깨물고 던지고 하지요. 지난 번에는 효재가 나무재질의 자동차 모형의 자동차를 조립하며 놀다가 웅이가 자동차를 뺏는 거예요. 그러자 현우가 나무 자동차를 웅이에게 던졌는데 이마에 맞은 거예요. 정말 순간적이었어요.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하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사고가 일어난 후 인거예요.

<2015. 5. 26. B교사의 면담>

1세 영아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성으로 놀이 활동 중 이해와 양보 보다는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위험에 대한 인식부족, 신체조절력의 미숙으로 추락, 넘어짐, 끼임과 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도 실내 미끄럼 위에서 자리다툼으로 서로 밀고 있는 영아들을 목격한 교사는 바로 달려가서 갈등을 중재하였지만 급한 자국이 남았다. 교사는 응급처치를 하고 놀이 속에서 매일 놀이규칙이나 안전한 놀이 방법에 대해 알려 주지만 영아의 반복되는 위험놀이 행동에 두려움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집단 활동

1세 영아는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발달 수준, 흥미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집단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제 3차 표준보육과정(2013)에서도 0-1세의 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영아의 흥미와 요구에 적합한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활동시간이 너무 길지 않는 수준에서 영아의 발달적 차이와 흥미를 고려하여 집단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름 불러주기, 노래 부르기, 신체운동, 그림책 및 동화 들려주기, 오감, 미술, 요리, 안전교육등과 같은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영아들은 집단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의젓하게 행동하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것에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적이며 좌절이나 화를 통제 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나기도하였다.

B교사는 풍선 놀이를 계획하고 재료를 소개한다. 풍선을 보여주며 영아들의 관심을 끈다. 로켓트 날리기, 공기 불어넣기, 바람 빠지는 소리, 흑부리 영감 등 다양한 놀이로 관심과 흥미를 끈다. 영아들이 다 모이자 하얀색 풍선을 나눠주고 유성 싸인 펜으로 끼적이기를 한다. 진우가 파랑 싸인펜을 잡고 끼적이기를 시도하자 준영이가 뺏으려 한다. 진우는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깨물려고 입을 갖다 댄다. 교사는 “진우, 안 돼!” 하며 달려가 영아의 상태를 살핀다.

<2015. 6. 12. A어린이집 집단 활동 관찰일지>

풍선 끼적이기에서 영아들은 갖고 싶은 재료를 기다리거나 빌려달라는 말이 없이 바로 뺏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깨물려하였고 그 모습을 본 교사는 바로 제지를 하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교사는 이와 같이 놀이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미리 대처해야 했다.

집단 활동 중 물감이나 싸인 펜을 끼적이기, 풀칠놀이는 정말 힘들어요. 물감놀이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 얼굴에 옷에 바닥에 묻히고 쏟으면 닦고. 눈에 들어가면 씻기고, 활동 끝나고 정리하고 씻기기가 제일 힘들어요. 개별적으로 더 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는 나중에 따로 씻겨야 하잖아요. 그런 날은 계속 뒷정리만 하는 거예요.

<2015. 6. 12. B교사면담>

가운이는 동화책을 가져와서 교사에게 읽어달라고 한다. 준영이가 풍선을 잡으려다 가운이와 부딪치며 넘어진다. 교사는 좁은 보육실에서 영아들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준영이의 놀잇감을 한쪽으로 모으고 승호가 블록놀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다른 한 쪽으로 가서 가운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중간 중간 시선은 영아들 풍선 놀이하는 모습, 블록놀이 모습을 관찰한다. 교사는 활동 후 유성 싸인 펜으로 엉망이 된 책상과 교실 바닥을 닦느라 바쁘다.

<2015. 6. 12. A어린이집 집단활동 관찰일지>

영아의 집단 활동에서 교사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이 다르고 집중력 또한 짧기 때문에 개별적 요구와 활동 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아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집단 놀이를 하면서 개별놀이를 즐기며 놀잇감 상자를 바닥에 쏟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수시로 놀잇감을 한쪽으로 모으거나 바구니에 담기도 하였는데 이는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을 경우 영아들이 발에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실외 활동

제 3차 표준보육과정(2013)에서는 하루일과 운영 시 실외놀이를 하루에 1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정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영아교사에게 있어 실외활동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는 힘든 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다른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에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생활규칙이나 질서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아들을 데리고 실외활동을 나가면서 안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공간의 제약이 없는 실외 활동의 특성상 영아는 주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매우

풍부하고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 특성으로 인한 예기치 않는 돌발행동은 교사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함께 실외활동을 가기로 한 사슴반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코알라반을 기다리고 있다. 사슴반은 만 2세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코알라반 영아들에게 산책할 때 지켜야 할 행동들에 대해 알려주고 문을 열자 준우가 뛰어 나간다. 그러자 모두 흩어지며 신발장에 우르르 몰려가서 신발을 꺼낸다. 신발장에 4명이 한꺼번에 서 있어 위험함을 느끼고 모두 현관 앞에 앉게 한 다음 이름을 부르고 차례로 신발을 신도록 도와준 다음 친구들과 짝을 지어준다. -중략- 그 사이 준우는 혼자서 앞만 보고 아파트 공원 쪽으로 달려간다. 그러자 준우를 따라 진우도 함께 달린다. 교사는 준우의 이름을 부르며 멈추라고 말하자, 교사를 한번 보더니 그대로 찾길을 뛰어 건넌다. 교사는 다행히 차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교사는 진우와 준우를 양손으로 붙잡고 나머지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다. 진우와 준우는 무척 재미있었다는 듯 흥분되어 있었으나, 교사는 땀에 젖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교사는 벤치에 준우와 진우를 앉히고 한동안 산책활동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느라 바쁘다. 그 뒤로 교사는 진우와 준우의 손을 놓지 못했다.

<2015. 4. 24. A어린이집 실외활동 관찰일지>

산책 나가기 전 교사는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었으나 교사가 문을 열자마자 영아들은 우르르 신발장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산책 나가기 전 친구와 준우에게 짝을 지어 손을 잡게 해 주었지만 뿌리치고 교사가 계획한 산책길이 아닌 준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달려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영아들을 데리고 실외놀이를 할 경우 영아들의 안전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교사는 교실로 돌아올 때까지 진우와 준우의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3) 자조기술이 부족한 영아 개별적 돕기

① 씻기

손 씻기는 영아의 발달 특성상 한두 번의 지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의 일과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유아에게 하듯이 언어로 지도할 수 없고 자조기술이 형성될 때까지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시범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가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입구 바닥에는 다른 영아들이 손을 씻을 때 순서를 기다리는 영역이 표시되어 있다. 사랑반 영아들은 차례로 앉아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교사는 맨 앞에 앉아 기다리는 현우의 손을 잡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 씻기를 돕는다. 다 씻은 후 손의 물기를 수건으로 닦고 나오자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영아들이 신발장으로 가서 놓고 있다. 바닥에는 신발들이 흩어져 있고 태영이는 다른 영아의 신발을 꺼내어 신고 왔다 갔다 한다. 그 모습을 본 B교사는 깜짝 놀라며 “애들아~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야지.” 한다. 하지만 태영이와 우원이는 웃으며 “재미있지?” 한다. 교사는 신발정리를 다 한 후 태영이와 현우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2015. 6. 9. B어린이집 손씻기 관찰일지>

영아들은 씻는 과정에서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교사는 한명씩 손을 씻겨야 하고. 지난번에는 원장님이 영아들을 화장실에 다 데리고 들어가서 씻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화장실 벽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손을 씻는데 난리가 났어요. 변기에 뚜껑 열고 닫기. 변기 속에 손을 넣고 휘젓기, 친구 칫솔 꺼내서 입에 넣기. 치약 짜기, 수건 던지기, 휴지 빼기 등 그 날 아이들 다 씻기고 정리하고 나오는데 30분 걸렸어요.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5명을 기다리게 하고 교사가 한명씩 씻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중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잡으러 가고~1학기 내내 반복되죠 이럴 때는 보조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교사가 아이들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하거나. 주의집중 노래를 하거나 하는 사이 다른 교사는 손 씻기를 도울 수 있고~

<2015. 6. 9. B교사면담>

영아교사는 스스로 손 씻기가 어려운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했고 기다리는 나머지 영아들을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도 교사가 영아의 개별 손 씻기를 돕는 사이 나머지 영아들은 신발장에서 놀기, 변기 손 넣기, 다른 영아의 칫솔 꺼내기, 휴지 빼기 등과 같은 행동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좌절감과 뒷정리로 힘든 육체적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기술과 생활습관이 형성되기까지 매번 반복지도를 해야 하지만 교사 혼자서 여러 영아를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② 배변활동

월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세는 배변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장영희(2007)는 영아의 배변 통제는 신체구조나 근육의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역할에서 영아의 발달과 개인의 건강 상태, 정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아가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하기까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손길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유놀이 시간 실내 미끄럼틀 위에서 현우가 실수를 했다고 형들이 다급하게 알려준다. 교사가 가보니 바지가 젖어있고 미끄럼틀이 흥건히 젖어있다. 교사는 아이들이 미끄럼 가까이 못 가게 주의시킨 다음 마른걸레와 소독, 젖은 걸레를 가져온다. 교사는 현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발을 닦이고 젖은 바닥을 마른 걸레로

뒹은 다음 젖은 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2015. 6. 23. B어린이집 자유놀이 관찰일지>

준우는 아침에 응가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꼭 아빠랑 등원하면서 응가를 하나 봐요. 아빠랑 유모차를 타고 등원했는데 유모차에서 안 나오겠다고 해서 겨우 설득하여 안고서 유모차에서 내리는데 응가가 밖으로 넘친 거예요. 그래서 안았는데 제 손에 노란 응가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버님지가 보시고 무척 미안해 하셨지요. 이미 유모차에도 응가가 묻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정신없었어요. 다 벗기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씻겨야죠. 옷 애벌빨래 해야죠. 갈아입혀야죠. 유모차 씻어서 바깥에 말려야죠.

<2015. 5. 15. A교사면담>

교사는 하루일과 활동 중간에 영아의 배변훈련을 지도하지만 영아의 생리적 욕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변처리를 돕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영아의 개별적 생리요구를 세심히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여 미리 알아차려야 하지만 다른 영아들도 함께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영아의 배변 시간을 놓쳐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영아 몸 씻기기, 여벌 옷 갈아입히기, 영아들이 실수한 옷 애벌빨래하기 등과 같이 신변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식사시간이었어요. 아이들 한명씩 밥 먹는 것을 돕고 있는데 웅이가 밥 먹다가 힘을 주고 있는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런데 다시 밥을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안먹을 수도 없고, 그 때 내 신세가 정말 딱했죠. 눈물도 나고. 부엌에 가서 고추장 가져와서 그냥 비벼서 억지로 먹었어요. 오후에는 아이를 돌보려면 먹어야 하잖아요.

<2015. 6. 9. B교사면담>

영아교사는 식사하는 도중에도 밥 먹는 것을 멈추고 영아의 배변을 돌보

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교사는 영아의 배변을 처리한 후 다시 식사를 해야 하지만 이미 모두 식어버린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일 보육을 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만큼 억지로 먹을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③ 급·간식 시간

영아는 발달특성상 손가락 포크사용이 미숙하여 밥과 반찬을 뜨기도 쉽지 않으며 떠서 입으로 가져가더라도 바닥으로 흘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런 불편함에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기도 하고 식판을 들고 국물을 마시면서 쏟기도 하였다. 골고루 먹기 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입맛에 맞는 반찬만 먹으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였다. 영아교사에게 급·간식 시간은 영아가 음식을 먹을 때 가져야 하는 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르는 시간으로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느라 몹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교사는 혼자서 스스로 먹지 못하는 영아 두 명 사이에 앉아서 수시로 떠먹여 주거나 도움을 주면서 함께 먹는다. 웅이는 식판을 들고 국물을 마시다가 옷에 국물을 쏟았다. 교사는 바지까지 젖은 웅이를 데리고 물로 씻긴 다음 여벌옷으로 갈아입힌다. 성원이는 고기만 먹는다. 어느새 고기를 다 먹고 더 달라고 한다, 하지만 밥은 그대로 이고 다른 반찬도 그대로다. 교사는 우원이에게 다른 반찬과 함께 먹여 준다. 태영이는 국물 속의 건더기만 손으로 건져 먹는다. 교사는 태영이에게 밥과 반찬을 함께 떠서 먹도록 도움을 준다. -종락- 교사는 맨 마지막 도시락에 남은 음식을 일일이 굽어서 영아들에게 먹여주고 개인도시락의 국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 한다

<2015. 6. 23. B어린이집 점심식사 관찰일지>

위의 사례에서도 B교사는 자신의 식사 도중 수시로 일어나서 영아들의 개별 식사지도와 요구를 들어주느라 바쁜 모습을 보였다. 영아가 국물을 마

시다 쏘자 주변을 닦고 여벌로 갈아입히는 모습, 식사도중 돌아다니는 영아 지도하기,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편식지도, 바닥에 흘린 밥풀과 반찬 수시로 치우기, 마지막으로 식판에 남은 음식 긁어 먹이기 식판 및 책상 닦고 정리하기 등의 역할을 하느라 정작 교사 자신의 점심을 미루고 있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거의 떠먹여 주잖아요. 엄마가 밥그릇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먹이기도 하구요.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는 영아들인데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영아가 스스로 먹게 두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먹고 나중에는 부족하면 더 달라고 떼를 쓰죠. 그래서 식습관이 형성될 동안은 교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영아들 한명씩 돕고 있어요. 내가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는 사이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2015. 6. 23. B교사면담>

점심시간은 영아와 교사 모두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교사는 육체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영아에게 교사 혼자서 5명 영아들의 식사지도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느라 정작 교사는 식사를 굶거나 아니면 급하게 식사를 하느라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식사시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소연 하였다.

영아들은 먹다 쏟고, 흘리잖아요. 그걸 바로 치우지 않으면 손으로 만지고 옷에 눌러 붓고, 머리에 붙이고 옷 속에도 들어가고-<중략>-지난번에 윤지 어머니가 원장님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 했대요. 윤지가 저녁에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속옷에 밥알이 붙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고. 그게 활동하면서 살에 얼마나 찢렸을까? 생각하니 맘이 아팠다고 하시며 선생님이 더 잘 돌봐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교사가 아이들 밥풀이 속옷에 들어갔나? 일일이 어떻게 다 뒤집어 봐요?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속상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들 밥 다 먹고 나면 속 옷 뒤집어 보구요, 국물 조금이라도 떨어져 젖어 있으면 바로 갈아 입혀요.

<2015. 6. 23. B교사면담>

식사시간에 영아교사는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학부모의 태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에서도 학부모는 국물이 옷에 흘려서 냄새가 나는데도 갈아입히지 않는다고 불만을 얘기하였고 영아가 흘린 밥풀이 옷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세심하게 돌보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교사는 자신의 헌신과 열정에 회의감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

(4) 영아의 개별낮잠 요구에 따라 낮잠재우기

낮잠과 휴식시간은 영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며, 하루일과에서 오전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친 영아에게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영아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잠을 자는 것은 매우 힘들어 낮잠을 거부하거나 심하게 울기도 하였다. 영아교사는 이렇게 민감한 개별적 수면 욕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태영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안자~” 한다. 교사는 “태영이 안잘 거야?” 라고 묻자, “응” 한다. 교사는 “안자도 좋으니 주현이 이불에서 책 볼까?” 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평소에 좋아하던 그림책을 들려주자 불안한지 태영이는 더 크게 운다. 윤지도 따라 운다. 교사는 태영이와 윤지를 번갈아 토닥이며 자장가를 들려 주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태영이를 안고 토닥여 주자 태영이 울음을 그친다. -<중략> -교사는 태영이를 이불에 살짝 누는데 예민한 태영이는 눈을 뜨고는 다시 운다. 교사는 태영이를 안아 올려서 깊이 잠이 들 때가

지 토닥여 주었다.

< 2015. 4. 21. B어린이집 낮잠시간 관찰일지>

낮잠은 자는 습관이 집에서 길들여져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영아들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수면 욕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면 쉽게 잠들지 않아서~그게 힘들어요. 어떤 아이는 안아 달라고 하고 어떤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자야하고 어떤 아이는 입술을 만지면서 자야하고, 어떤 아이는 엮어서 채워야 하고, 어떤 아이는 등을 토닥여 주어야 자고, 일어나서 안고서 왔다 갔다 해야 잠드는 아이 등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요. 어떤 날은 진땀도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해요.

<2015. 4. 21. B교사면담>

그 동안 영아는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낮잠을 자는 것에 익숙하여 엮어주어야 자는 아이, 안아주어야 자는 아이, 입술을 만지며 자는 아이 등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대로 채워줄 때까지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불편함과 불안함에 낮잠을 거부하며 우는 영아를 안고 토닥여 주거나 엮어서 채우는 등 영아들의 개별 낮잠 방식에 따라 낮잠을 채우면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부모와의 관계맺음의 어려움

1세 영아의 하루일과 중 귀가지도 시간은 교사와 학부모간의 관계 맺음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학부모와의 소통은 주로 아침 등원시간 보다는 귀가지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일과 동안의 건강상태나, 또래와의 놀이, 투약사항, 낮잠, 식사 지도 등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가운이는 음식에 알레르기가 조금 있는 것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 드려도 아니라고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된장국, 오이같은 음식을 먹으면 입 주위가 빨갱게 부풀어 오르거나 빨강 반점이 생기더라

구요. 심지어 된장국 나오는 날은 국에 말아 달라고 하거나 식판을 스스로 들고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날도 입주위가 부풀어 오른거예요. 스스로 굽기도 했구요. 식사 후 깨끗이 씻기고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라앉긴 했는데 귀가 시간에 어머니가 보시고 누가 꼬집었냐고, 친구가 때렸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이는 된장국을 먹는 날은 그런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집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때리거나 꼬집은 것 같다고 불편해 하시면서 집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운이 얼굴을 보니 아무렇지 않더라구요, 꼬집거나 때린 상처라면 자국이 더 오래 가야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구요.

<2015. 6. 12. A교사면담>

특히 1세 영아는 발달 특성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는 귀가 시간을 활용하여 영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종종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시선과 언행으로 인하여 영아교사는 거리감을 갖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A교사는 영아가 조금 자극적인 국이나 음식을 먹으면 입 주변이나 턱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 어머니께 보고를 하였으나 어머니는 교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귀가 시간에 정말 정신없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귀가지도를 해야 하는데 한번은 제가 정리하다가 현우 도시락을 태영이 도시락이랑 바꿔서 넣은 거예요. 그 날 현우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 도시락이라고 고개를 끄덕여 현우 가방에 넣었는데~그 날 저녁 현우 어머니가 원장님께 전화를 하셨대요. 도시락이 바뀌어 왔다고. 그 다음날 원장님이 소지품 잘 챙겨주라고~ 아이들 몇 명이나 된다고 소지품이 바뀌냐고 하시더라구요. 휴~ 그 도시락 때문에 아주 무능하고 꼼꼼하지 못한 교사가 되어 버렸죠. 저는 확인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특히 영아반 교사는 너무 바쁘니까 그런 실수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머니는 내 아이만 보니까~그런 걸 이해 못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 2015. 7. 7. B 교사면담>

통합보육 시간에 교사는 좁은 보육실에서 다섯 명이 아닌 더 많은 영유아를 한꺼번에 돌보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영아의 소지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결과 원장과 학부모에게 무능하고 꼼꼼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 장시간의 종일보육에서의 어려움

영유아보육법(2015)에 의하면 어린이집 일과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12시간 종일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맞벌이 부모와 시간 연장근무등과 같은 불규칙한 근로에 시달리는 부모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허영숙, 2014).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원칙을 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종일보육시간과 차이가 있었으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영아교사는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3명에서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 번씩 아침당직 저녁당직을 선답니다. 7시 30분에 출근한 선생님은 4시 30분에 퇴근하고, 10시 30분에 출근한 선생님은 7시 30분 퇴근, 9시 출근하신 선생님은 6시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정해 두었어요. 7시 30분에 출근하신 선생님은 말이 4시 30분 퇴근이지 절대 그 시간에 퇴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시 30분에 귀가하는 영아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반은 4시 30분 되면 1명 정도 집에 가는데 나머지 영아들은 누가 보냐구요. 만약 내가 없는 시간에 다치거나 하면 저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2015. 6. 26. A교사면담>

영아교사는 8시간 근무시간이 원칙이지만 도와 줄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퇴근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영아교사가 중간에 퇴근할 경우 나머지 교사가 돌보아야 할 영아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담임교사가 퇴근한 후 일어난 상처에 대해서도 담임의 돌봄의 책임으로 묻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어머니들이 귀가할 때 담임교사랑 아이에 대해 상담 하시기를 바라시거든요. 원장님도 그걸 바라시구요. 왜냐하면 영아들이라 아침에 어머니와 전혀 아이에 대해 대화를 못 나누거든요. 대체로 울고 떼쓰며 안 오려고 하니까 서둘러 아이를 떼어놓고 가세요. 저녁 귀가 때는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 편이라 어머니들이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담임교사가 없으면 대체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영아들도 담임선생님이 없으면 찾거나 불안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2015. 6. 23. B교사면담>

저녁에 행복반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로 하루만 저보고 저녁당직을 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이니까~ 저도 바쁘지만 알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6시쯤 퇴근하시고 남은 아이들을 보니, 가방정리가 안되어 있는거예요. 행복반 민준 어머니가 오셨는데 아이 양말이 없어진 거예요. 양말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양말 찾으러 구석구석 헤매고 다녔어요. 교구장도 뒤집고 그랬죠. 결국 못찾고 그냥 귀가지도 하는데 그 어머니 엄청 까다롭거든요. “행복반 선생님~어디 가셨나 봐요?” 하면서 담임이 없어서 아이를 잘 못본 것은 아닌가?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실망의 표정과 말투인거 있죠?

<2015. 6. 9. B 교사면담>

교사는 영아의 부모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알림장에 영아의 식사 및 낮잠 여부와 놀이 행동, 전달 사항 등을 기록하여 영아의 일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지만 담임이 보이지 않으면 찾거나 없을 경우 ‘내 아이가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태도를 보였다. 위의 사례에서도 귀가 시간에 영아의 양말이 없어지자 마치 담임교사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불신하는 모습에서 교사는 좌절을 겪는다고 하였다.

저희는 스마트폰 알림장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영아들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하거든요. 영아들이 제 시간에 자 주어야 하는데 늦게 자거나 안자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일이 계속 밀리고,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들은 제때 잘 하는데 왜 선생님만 밀리냐고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돌보느라 제가 한 아이의 사진 찍는 걸 놓치면 또 혼나요. 엄마가 매일매일 확인 하는데 엄마가 아이 사진 없으면 내 아이한테 소홀한 것 아니냐고 뭐라고 하신대요.

<2015. 7. 24. A교사면담>

실제로 영아교사의 어린이집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9시간이지만 영아를 보살피는 업무 외에도 매일 보육평가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을 영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아 낮잠시간을 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영아들이 모두 귀가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늦게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2시 정도가 되면 반 아이들이 모두 귀가하고 종일반은 종일보육 선생님이 돌보잖아요. 그래도 급여는 어린이집 교사가 훨씬 적어요. 그럴 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계속 유치원에서 근무할 걸 하고 후회도 되구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는 나머지 시간에 퇴근할 때까지 청소며, 업무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영아반이라 종일 아이들 돌보느라 다른 일을 못하죠, 퇴근 전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저희도 일과시간을 유치원처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교사가 종일 보육이 아니라 유치원처럼 영아 정규 보육과정을 두고 그 외 시간은 다른 교사가 보육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업무들을 볼 수 있잖아요.

<2015. 6. 26. A교사면담>

위의 사례에서 영아교사의 어려움으로 보육시간의 과다를 이야기하였다. 실제 어린이집 보육은 종일보육으로 퇴근하기 전까지 10시간이상 영아를

돌보거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기본적인 생활과 개별적 생리적 요구를 스스로 처리하기 힘든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육체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단지 어린이집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유치원 교사와 급여와 근무환경의 차이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원장님도 선생님들이 힘들게 근무를 하면 솔직히 교사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사의 성의는 있어야 하잖아요. 말이라도.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꼭 노예가 된 듯 하루 종일 영아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무한 반복이잖아요. 영아반에 휴식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요. 오로지 휴식시간은 영아들이 모두 귀가 한 후가 되겠죠.

<2015. 7. 14. B 교사면담>

보육사업안내서(2015)에는 ‘교사의 8시간 근무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근무시간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은 근무 시간 내에 모든 어린이집 업무를 끝내기를 바라지만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하루일과에 영아 적응시키기 어려움

만 1세 영아의 주요일과는 등원 및 맞이하기, 오전 자유놀이, 기저귀 갈기 및 손 씻기, 오전간식, 실외자유놀이 및 손 씻기, 점심식사 및 이 닦기, 낮잠준비 및 낮잠, 기저귀 갈기 및 손 씻기, 오후 간식, 오후자유놀이, 귀가 및 통합보육 등이 순서대로 진행된다(표준보육과정, 2013). 그러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영아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영아교

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0시 30분은 오전간식 시간이다. 교사는 시간을 확인하고 10시가 되자 영아들에게 새소리로 곧 간식시간임을 알린다. “친구들~ 이제 장난감이 배가 고프데요. 그만 놀고 장난감 집에 데려다 주자~ 우리도 이제 손 씻고 맛있는 간식 먹을 거예요~” 라고 알려 준다. 하지만 준영이 진우는 블록 끼우기와 자동차 놀이를 계속한다. 준영에게 정리하자고 하자 “안 돼” “싫어” “이거 안 돼” 하며 장난감을 치우지 못하게 한다. 교사는 간식메뉴를 알려주고 장난감 정리하고 함께 먹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싫어” “내꺼야” 한다. 교사는 주변을 보고 아직도 장난감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교사 혼자서 정리를 한다. 하지만 블록을 다 정리할 무렵 진우가 다시 블록 바구니를 바닥에 쏟는다.

< 2015. 5. 15. A어린이집 정리정돈 관찰일지 >

영아들은 정리하는 의미를 몰라요. 하루일과는 정해져 있고 만 1세 영아의 생리적 리듬에 맞춰 하루 일과가 계획되어 있는데 빨리 정리해야 다른 활동을 할 것 아네요. 그러나 영아들은 정리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처음엔 한 두 가지 정도 스스로 장난감 정리할 기회를 주죠. 그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쓰는데 언제 하나구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그냥 제가 다하는 편이에요.

< 2015. 5. 15. A교사 면담 >

영아교사는 오전간식을 위해서 장난감 정리, 이동하기, 모이기, 기다리기, 손 씻기, 기저귀 갈기와 배변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교사의 계획과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영아들은 놀잇감 정리 보다는 오히려 반주 소리에 더 흥미를 보였다. 교사는 놀이하는 영아 한명 한명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교사는 정리정돈 자체가 어려운 영아의 특성과 다음 활동시간을 맞추기 위해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혼자서 모든 장난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영아교사는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였으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아들은 점심을 먹고 이를 닦고 바로 자야해요. 약간의 개별적 차이는 있는데 점심 먹고 나면 거의 지쳐서 졸려하거든요, 거의 오후 1시 정도 되면 낮잠 잘 준비를 하죠. 만약 아이가 안자려 해서 늦게 재우면 다른 친구들 일어나서 소란스럽게 놀 때 자야하고, 그리고 친구랑 놀 수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간식을 못 먹고 집에 가면 짜증을 낸데요. 일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교사도 더 힘들고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하는데 허둥대겠죠.

< 2015. 5. 12. B교사 면담 >

실외 활동으로 모험 놀이터로 나가잖아요. 20분 정도 놀면 들어와야 해요. 왜냐하면 씻기고 점심을 먹어야 하거든요. 영아들은 놀이터에 가면 신나니까 계속 놀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만 놀고 모이자 해도 안모이잖아요. 한명씩 다 데리고 벤치에 앉혀서 모래 털어 야죠. 그리고 어린이집 들어오는데도 시간 걸리죠. 지난번에는 안 들어오겠다고 해서 두 명을 양쪽으로 안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들어와서도 다 씻겨야죠.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시간에 점심을 먹으려면 서둘러야 되요.

<2015. 5. 15. A교사 면담 >

교사는 영아의 일과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융통성 있게 진행하여야 하지만 교사 혼자서 모든 영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어린이집의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영아들은 일과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간식과 점심을 먹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손 씻기, 기저귀 갈기를 거부하고,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울거나 계속 실외놀이만 하려고 떼쓰는 행동, 장난감 정리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교사는 하루 종일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저희 사랑 반은 4월부터 정규 하루일과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월은 적응기간이라 자유롭게 했지만 4월부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아 어린이집 하루 일과 계획에 따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적이고 순차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영아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영아들이 집에서 자유롭게 하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개별아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활동도 있는데~

<2015. 7. 14. B 교사면담>

사랑반 영아들은 4월부터 계획된 일과에 따라 종일보육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영아는 가정에서 생리적 개별 요구에 맞추어진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영아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일과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B교사는 어린이집 하루 일과가 1세 영아의 생리적 발달적 요구에 맞게 계획하고 일과활동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못한 영아를 적응시키는 과정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B교사는 오늘 이루어질 특강시간을 맞추기 위해 흩어진 장난감을 모두 정리하라 몹시 분주해 보였다. 특강활동 시간은 정해져 있고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교사에게 무엇보다 영아의 늦어진 점심과 그다음에 이루어질 양치하기, 기저귀 갈기, 낮잠 자기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활동이 늦어질 경우를 더 걱정하는 것 같다. 관찰의 눈에 비친 B교사의 모습은 아침부터 귀가까지 시간에 맞춰 짜여진 일과를 수행하느라 하루종일 힘들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에 못지 않게 영아도 정신없는 일과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과 계획이 있고 시간과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느꼈다.

<2015. 6. 9. 특강활동에 대한 관찰자 저널>

한국보육진흥원(2015)은 어린이집 내에서 특별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오전일과 시간대에는 표준보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활동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해야 하며,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특별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어린이집에서도 1세 영아들이지만 어머니들의 동의를 얻어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해진 특강시간은 영아의 일상적 보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관찰자 저널에서도 정해진 일과 계획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느라 교사와 영아 모두 허둥대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생활에 여유를 찾을 수 없었고 과연 누구를 위한 일과 계획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4) 비효율적 공간 구성으로 인한 어려움

종일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환경은 오랜 시간 영아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영아의 행동과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아교사는 영아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일상적인 양육과 보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탁책상을 한쪽으로 치우고 이불을 편다. 공간이 좁아 이불 펴는 것도 쉽지 않다. 나란히 누울 공간이 부족하여 5명의 공간을 마련하느라 요를 이리 저리 돌려 본다. 5명이 누우면 공간이 팍 찬다. 그러다가 성원이랑 부딪치자 “가~” 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꼬집으려 한다. 교사는 다가가서 중재를 하고 효재와 성원의 자리를 조금 더 떨어뜨려 놓는다. 모두 잠든 영아반 교실에서 교사는 이불을 덮어주고 전체를 살핀다. 교실은 좁아서 발 디딜 틈이 없다.

<2015. 5. 12. B어린이집 낮잠시간 관찰일지>

교실이 좁아서 책상을 다 치워도 이불 펴기가 쉽지 않아요. 어찌다 1명씩 결석하는 날은 조금 낫죠. 영아들은 거의 결석이 없거든요. 매일 5명씩 자다보면 서로 부딪친다고 밀고 꼬집고 그러죠. 잘 때 돌아 누면서 다리를 친구 다리위에 올리기도 하구요.

< 2015. 5. 12. B교사면담>

낮잠시간에는 영아의 낮잠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책상을 들고 옮겨야 했으며 다섯 명의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이불을 펴기 위해 교사는 고민해야 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해 영아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꼬집거나 때리는 등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영아가 낮잠 자는 동안 몸부림으로 다른 영아를 짓누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실 한 구석에 앉아서 영아의 낮잠을 살펴야 했다.

교사는 이불을 정리하여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장난감으로 놀 수 있도록 하였다. 교실이 점점 소리가 커지고 시끄러워 지자 윤지가 일어난다. 교사는 윤지를 화장실에 데리고 다녀온다. 교사는 나머지 이불을 정리하여 이불장에 넣고 불을 켜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웅이는 한쪽으로 이불을 옮기고 다른 영아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2015. 5. 26. B어린이집 낮잠시간 관찰일지>

아침 일찍 등원한 현우 어머니는 현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졸려 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현우는 오전 자유놀이시간에 놀이에 집중을 못하고 웅이, 우원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무조건 뺏기도 하고 짜증을 부린다. 그러더니 이불장을 열어 이불을 꺼내 달라고 한다. 교사는 도서영역 한쪽에 효재 이불을 펴준다. 그러자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눕는다. 누워서 잠을 청해보려고 하지만 친구들의 놀이 소리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우원이 자동차를 밀고 지나가자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우원이 자동차를 뺏으며 “취” 한다.

<2015. 7. 7. B어린이집 관찰일지>

위의 사례에서도 낮잠이 부족한 영아는 낮잠을 더 자고 싶어 하였으나 다른 영아들의 이동이 잦고 소음이 많고 주의가 산만한 교실분위기로 깰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졸리거나 지친 영아는 놀이 도중에 편히 누워서 쉬고 싶었지만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곤한

영아는 짜증을 부렸고, 그런 영아를 달래고 보살펴야 하는 역할은 온전히 영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힘든 몫으로 나타났다.

승호는 요술 봉으로 두드리고 싶은데 너무 좁아 벽을 두드린다. 진우는 블록상자를 두드리고 준영이와 준우는 서로 칼싸움 흉내를 내다가 준우랑 가윤이가 부딪친다. 머리끼리 부딪쳐서 가윤이가 아픈지 머리를 잡으며 운다. 교사는 가윤이 상태를 보고 괜찮다며 안아준다. 교사는 영아들을 데리고 조금 더 넓은 활동실로 가서 놀이 할 수 있는지 살펴보지만 이미 밖에는 만 3세 유아들이 영어 특강을 하고 있다. 교사는 영아들과 교실에서 요술 봉 놀이 대신 앉아서 놀이할 수 있는 탑 쌓기 교구를 소개하였다.

<2015. 6. 26. A어린이집관찰일지>

보육 활동실은 각 교실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놀거나 다른 반이랑 함께 놀면 아이들이 많아져서 위험하니까. 서로 시간을 나누어 하루에 30분씩 놀이를 한답니다. 그 외는 사랑반에 거의 갇혀 있다고 봐야죠. 그 속에서 한참 뛰어 놀아야 할 영아들인데 그 에너지를 해소를 못하니까, 공격적으로 변하더라구요. 그리고 놀이 집중도 짧구요. 지난번에는 웅이 어머니가 원장님께 말씀하셨대요. 웅이가 자주 얼굴을 긁혀 온다고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제발 아이들 안다치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015. 6. 26. A교사면담>

위의 사례는 좁은 보육실로 인하여 영아와의 놀이상황에서 겪는 교사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영아들은 요술 봉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다양한 신체놀이를 즐기고 싶지만 영아의 움직임과 이동성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좁은 교실에서의 놀이는 영아들이 더 자주 부딪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아를 주의 깊게 잘 돌보지 못한다며 학부모와 원장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교사는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실 안에 손 씻기 시설이 없어서 아이들 다 데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영아들은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데 아이들을 교실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데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5단 분리가 일어나죠. 화장실 가는 도중에 활동실이 있거든요. 주로 신체 놀이하는 미끄럼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놀아요. 화장실에 데려가서 씻겨야 하는데 아이들은 안 씻으려고 도망 다니고.

<2015. 5. 19. B교사면담>

세면대나 화장실이 보육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보육환경에서 교사는 영아들을 데리고 수시로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흩어져 손 씻기를 거부하는 영아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개별 손 씻기 도움과 나머지 영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바쁜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고 지시만 하는 원장의 태도에서 육체적, 정서적인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

영아들은 각자 생리욕구가 다르잖아요. 태영이랑 현우가 생일이 빨라 배변훈련을 시작했는데 현우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응가가 마렵다고 하면 빨리 화장실에 데려가서 변기에 앉혀야 하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막 서두르게 되요. 바지 스스로 내려 보게도 하고 스스로 변기에 앉아 보게 해야 하고 응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를 해 주어야 하는데 현우를 빨리 변기에 앉혀두고 저는 교실에 바로 들어와야 해요.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러면서 수시로 현우 이름을 부르며 안심을 시키고, 현우가 응가 다했다고 하면 가서 얼른 뒤처리하고 교실로 들어와야 해요.

<2015. 7. 7. B교사면담>

영아교사는 일과활동 중에도 영아의 배변훈련을 위해 자주 화장실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를 하고 있는 영아는 배변 후 물로 씻어주었고, 배변훈련 중에 있는 영아에게는 배변과정을 지켜보며 모든 과정을 돕기도

하였다. 그럴 경우 영아교사는 교실에 남겨 둔 나머지 영아의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화장실과 교실을 왔다 갔다 하며 돌보는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5) 동료교사와 소통하기 어려움

종일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은 보육의 역할을 포함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뿐 아니라 교사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휴식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단혀진 공간으로 제한된 행동과 억눌린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화장실도 맘 놓고 못가요. 화장실도 참았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가다보니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 외엔 교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반 선생님도 다 바쁘신데 잠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구요. 모두 담임제라 각반 담임을 맡고 있으니까요.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원장님인데 원장님도 바쁘시고, 또 부탁하면 안 좋은 얼굴표정이죠. 다른 반 선생님은 안그런데 선생님은 꼭 그 시간에 가야하나 하는 표정이시죠. 그러니 참을 수밖에 없어요.

<2015. 6. 9. B교사면담>

때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여러 관계적 갈등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영아보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동료 교사의 격려와 조언을 통해서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싶지만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는 다른 교사와의 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은 놀이과정 중에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사는 한시도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아교사는 각자의 보육실에서 쉬는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자유롭지 못하며 심지어 B교사는 잠깐 간식을 가지러 보육실문을 나설 때도 교실 상황이 걱정되어 서두르게 된다고

하였다.

저희는 하루 종일 다른 교사와의 소통이 거의 없어요. 항상 각반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마주보고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았을 때죠. 하지만 그때도 이야기 많이 나누지 못해요. 각자 그날 활동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퇴근 전까지 서로 말 한마디 나눌 시간조차 없답니다. 특히 영아반 선생님은 한시도 영아들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되니까.

<2015. 6. 9. B교사면담>

교사는 낮잠시간에도 아이들 잠자는 곳에 있어야 해요. 혹시 아이들이 일어나서 울거나 쉬 마렵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도 걱정되구요. 캄캄한 구석에서 영아들 잠자는 모습 살펴가며 아이들 돌보면서 못한 서류, 사진 작업등을 해야 해요. 정말 쉴 틈이 없어요. 혼자서 답답하죠. 정말 감옥 같을 때가 있어요.

<2015. 8. 14. A교사면담>

1세 영아교사들은 수업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와 고립되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직후 교사들끼리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일과 활동 준비로 각자 바빠 소통할 수 없었고, 영아들이 모두 잠든 낮잠시간에도 영아의 안전을 위해서 교실에서 낮잠을 돌보면서 일일 보고서 작성 및 사진 작업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 종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교사는 소통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감옥 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2.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면담, 현장 관찰일지 분석을 통해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만 1세 보육교사의 어려움은 정서적 노동, 육체적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1) 정서적 노동

영아교사는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영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영아교사는 항상 밝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야하며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보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우가 나무재질의 자동차 모형의 자동차를 조립하며 놀이하는데 웅이가 자동차를 뺏는 거예요. 그러자 현우가 나무 자동차를 웅이에게 던졌는데 이마에 맞은 거예요. 정말 순간적이었어요.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하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사고가 일어난 후 인거예요. 그 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안전과 위험에 대해 말은 많이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아이들을 꼬집고, 깨물고, 던지기를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아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결국은 영아를 잘 돌보지 못한 저의 탓으로 돌리니까. 좌절감만 느끼죠.

<2015. 6. 9. B교사면담>

지난번에 승효랑 가운이가 미끄럼을 타는데 승효가 먼저 내려가고 바로 가운이가 내려오면서 서로 부딪친 거예요. 다행히 병원에서 입술에 약간 상처가 났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가운이 어머니는 영구치 손상이 있을 수 있다며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원하는 대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도 “선생님은 그때 뭐했어?” 라며 책임추궁을 할 때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모독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2015. 7. 24. A교사면담>

영아가 다칠 수 있다고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미리 통제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두려움을 경험하기

도 하였다. 일과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반복 지도하지만 돌아서면 깨물기, 꼬집기, 던지기와 같은 위험한 행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럴 때 마다 교사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과 가르쳐도 반복되는 충동적 행동에 화도 나고 좌절감을 경험하지만 모든 감정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영아의 정서를 고려하여 온화하게 지도하고 있었다. 일과동안 최선을 다해 영아들을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부모와 원장은 교사를 책임 추궁하기도 하였다. 쉬지 않고 헌신적으로 보살핀 결과를 볼 때 억울하지만 교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를 해야 하며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낮잠시간에도 아이들 잠자는 곳에 있어야 해요. 혹시 아이들이 일어나거나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교사책상이나 자리도 없잖아요. 캄캄한 구석에서 영아들 잠자는 모습 살펴가며 아이들 돌보느라 못한 서류, 사진 작업등을 해야 해요. 정말 실패가 없어요. 혼자서 답답하죠. 다른 교사와 서로 교감할 시간도 없어요.

<2015. 7. 21. B교사면담>

교사는 아이의 요구에 민감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사고가 나거나, 우니까~하루 종일 개별적으로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에 맞추다보니 교사의 감정은 늘 억누르고 참아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늘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하루일과 내내 말 통하지 않는 영아들만 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요.

<2015. 7. 24. A교사면담>

1세 영아교사는 영아반 교실이라는 발달적 특수성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일과를 보내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에 따른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며 돌보느라 늘 긴장되고 억눌린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영아가 낮잠 자는 시간까지도 영아의 안전을 위해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하며 동료 교사와 소통할 시간뿐 아니라 화장실, 물 마실 시간과 같은 교사 개인의 생리욕구해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아교사는 억눌린 감정을 참아야 하며 누구와도 마음을 교류할 수 없는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씩 손 씻기를 돕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번기에 뚜껑 열고 닫기. 번기 속에 손을 넣고 휘젓기, 친구 칫솔 꺼내서 입에 넣기. 치약 짜기, 수건 던지기, 휴지 빼기 등 정말 화도 나도 소리 지르고 싶었죠. 물론 목소리는 커졌지만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 날 아이들 다 씻기고 정리하고 나오는데 30분 걸렸어요. 한숨만 나왔어요

<2015. 5. 12. B교사면담>

기저귀같이 하는 곳도 없으니까. 손씻는 곳에서 갈고 있었죠. 기저귀를 빼고, 휴지를 닦고 물티슈로 닦이고 흐르는 물로 씻기고 새 기저귀를 갈고 옷입히고 휴~하고 일어나는데 제 옷에 응가가 묻은거예요. 그때 막 울고 싶어지더라구요. 예고~ 비누로 거기서 대충 씻었는데, 계속 그 냄새가 배어있어서 어린이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적도 있어요.

<2015. 7. 24. A교사면담>

자조능력이 부족한 어린 영아에게 모두 한 명씩 개별적 도움을 주는 과정은 교사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성이 강한 영아들에게 손 씻기, 배변활동, 급·간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까지는 영아교사의 수많은 인내와 노력과 노고가 필요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도 교사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도 나도 소리도 지르고 싶고 힘들어 울고 싶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상하고 애정 어리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돌보아야 했다. 이와 같이 교사의 정서 노동은 상황에 맞추어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것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표준보육과정에 맞추어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그에 따른 환경구성과 평가관련 업무, 그 외 어린이집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그런데 사실 이게 딜레마 같아요. 모든 것이 영아보육의 질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사는 영아들을 돌보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해야 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지쳐 영아들 보육은 뒷전이거든요. 실제로 환경이나, 평가 등 서류에서는 좋아 보여도 교사와 영아와의 생활에서 오히려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닌 의무적인? 그런 보육 말이에요.

<2015. 8. 14. A교사면담>

교사의 질이 교육과 보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영아교사는 영아들을 돌보는 역할 외에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평가관련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신체적으로 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교사의 보호와 도움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영아교사는 눈으로 보이지는 보육의 질을 위해서 학급환경구성, 평가관련 업무, 사진작업, 알림장 쓰기 등의 업무를 매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영아들을 돌보는 일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닌 의무적인 돌봄이 되어 오히려 영아보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졸업식도 못가고, 입학식도 못갔어요. 그리고 저의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갑자기 생겨나도 잠깐 다녀올 시간도 없죠. 예를 들면 저의 아들이 놀다가 넘어져 팔이 아프데요. 움직일 수 없다고~그런데 근무시간 중간에 갈 수도 없잖아요. 원장님도 다녀오라고 말도 안해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에게 부탁해서 병원 다녀왔는데 뼈에 금이 갔대요. 기브스를 하고 왔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구요

<2015. 7. 21. B교사면담>

교사가 퇴근하면 어린이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밤늦게 가족과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학부모한테 문자가 오거나, 주말에 가족과 영화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영아들을 보육하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 가방에 싸가지고 집에 가서 늦게까지 해야 하는 일등 영아들을 보육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집에서 쉬고 싶은데 교사도 가족을 돌봐야 하잖아요. 어린이집의 연장이고 싶지 않아요.

<2015. 8. 14. A교사면담>

위의 사례는 ‘교사 개인으로서의 삶과 직업으로서의 일’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영아는 담임이 아닌 경우 낮가림이 심하고 담임이 아니면 안된다는 학부모와 원장의 인식이 크기 때문에 교사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1인 담임체제에서 교사의 빈자리를 채워줄 어린이집 여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졸업식과 입학식은 물론 넘어져 팔이 부러져 응급실을 갔다는 소식에도 영아들을 보살피느라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근무시간 내에 보육업무를 해결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영아를 돌보느라 처리하지 못한 업무는 가정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영아교사는 종일보육으로 지친 몸을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기보다는 어린이집 업무의 연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번에 가운이 어머니께서 저녁 10시에 원장님 집으로 전화를 하셨대요. 글썄 머리가 찢어졌다고, 그런데도 교사는 아무 말이 없다고. 이 정도면 아이가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교사는 무얼 했냐고 하면서 화를 내셨대요. 다음날 제가 출근해서 원장님께 혼났죠.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보냐고. 그날 정말 그만 두고 싶더라구요. 나중에 어머니가 가운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왔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디부분인지 보니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찾는데 한참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다가 “못 찾겠네. 여기 어딘데~~”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교실에 와서 구석 구석 찾아보니 살짝 굵힌 부분이 보이는데 미세해서 보이지도 않더라구요. 참~

원장님도 보시고 웃으시는 거 있죠. 그날 저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요즘 학대 문제로 보육시설이 민감한데 이럴 때 일수록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2015. 6. 26. A교사면담>

현우가 침을 자주 흘리는 편이라 항상 손수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3-4번 정도 갈아주는데 집에 갈 때 약간 젖었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때 아이의 손수건을 안 갈아 주어서 목이 차가워서 감기가 오히려 낫지 않은 것 같다고 원장님께 말씀하셨대요. 원장님이랑 어머니는 제가 하루 종일 현우에게 얼마나 신경 써서 돌보는지 모르시잖아요. 나를 열심히 돌본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제 마음이나 노고를 몰라 주시니까요,

<2015. 7. 21. B교사면담>

영아교사는 하루일과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아픈 영아 돌보기, 안전한 놀이 돕기, 개별적 생리적 요구 돕기, 음식을 잘 먹도록 도와주기, 편안한 낮잠 돕기 등 영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돌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도 교사가 미처 알지 못한 상처가 발생하였고 영아의 머리가 찢어졌다는 학부모의 전화에 영아교사는 밤새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확인결과 사실과 다름을 알고 안도감을 갖게 되었지만 교사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B교사도 영아가 평소에 침을 많이 흘리는 관계로 자주 손수건을 갈아주지만 그러한 교사의 돌봄을 알지 못한 어머니는 교사가 자주 갈아주지 않아서 영아의 감기가 낫지 않는다면 교사의 돌봄을 불신하였다. 교사는 사실과 다른 학부모의 태도에 화가 나고 항의도 하고 싶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교사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정서를 보여야 했다.

2) 육체적 노동

1세 영아학급의 하루일과에서 영아교사는 유아교사가 경험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육체적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교사는 하루 종일 영아를 따라다니며 보살핌과 가르침의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또한 어린이집 일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양육은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된 일이므로 늘 교사의 신속한 판단과 움직임이 요구되며 교사 1인이 감당해야하는 영아 수는 쉴 틈 없는 움직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아교사에게는 힘든 육체적 노동일 수 있다.

승효는 소꿉놀이에 가서 과일 바구니를 꺼내더니 바닥에 쏟는다. 쏟아진 과일 모형을 보고는 관심 없는 듯 돌아서 음울 영역으로 간다. 거기서 보자기 바구니를 꺼내 보자기를 모두 쏟더니 그 중 파란 보자기를 들고 교사에게 다가 간다. 베프맨처럼 묶어달라고 하자 교사는 승효의 어깨에 보자기를 묶어준다. 우원은 자동차를 놀이를 하고 싶다며 자동차 바구니를 꺼낸다. 자동차를 쏟더니 좋아하는 폴리 자동차를 들고 일어나 벽돌 블록영역으로 간다. 벽돌 블록을 모두 꺼내 길을 자동차 길을 만드는 듯 열심히 놀이한다. 그러자 웅이가 다가오더니 발로 차서 벽돌이 흩어진다. 어느새 교실 바닥은 장난감으로 가득차서 영아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다.

<2015. 4. 24. A어린이집 자유놀이 관찰일지>

교사는 따라다니면서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아마 교실은 폭탄 맞은 교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심도 잘 못 잡는 아이들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끊임없이 교사는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아이들은 바구니에 쏟고 아마 1년 내내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2015. 4. 24. A교사면담>

1세 영아들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놀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아는 놀이하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만지작거리고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지칠 줄 모르는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을 하지만 놀잇감에 집중하고 지속하는

시간은 매우 짧게 나타났다. 놀이하는 동안 영아는 반복하여 장난감을 꺼내고 쏟고 던지며 넘어뜨리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기어오르거나, 뛰어다니는 대근육 위주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조절력은 미숙하기 때문에 영아들이 발에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수시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영아들이 정리하는 습관이나 규칙이 형성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영아교사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힘들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죠. 기저귀를 갈면서 싸우는 아이 달려가서 중재하고 돌아와서 다시 바지를 입히는 일, 장난감 정리 하는데 위험한 놀이하는 아이들 바른 놀이 방법 알려주기, 아이는 아침에 등원 해서 계속 울면서 안아달라고 하는데 다른 아이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죠. 계속 울면 안아주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기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안고 있어야 해요.

<2015. 6. 9. B교사면담>

다른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변기 속으로 손을 넣어 휘젓기, 샤워기에 나오는 물에 찰방찰방하며 발을 동동 구른다. 교사는 미끄러질 수 있음을 알리고 다시 기다리게 한다. 모두 5명을 씻기고 교사는 재빨리 손과 발을 씻은 후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간다. 교실로 들어온 교사는 옷이 다 젖은 웅이의 옷을 여벌로 갈아입히고 웅이, 우원이, 윤지의 기저귀를 간다. 어느새 가들찬 기저귀 휴지통을 확인한다. 영아들에게 자리에 앉아 물을 따라주어 마시게 한다. 그 사이 교사는 기저귀 통을 비운다. 비우고 교실에 온 사이 웅이는 컵 속에 손을 넣어 물을 만지다 바닥에 쏟는다. 교사는 바닥을 걸레로 닦고 웅이의 바지를 갈아입힌다. 그리고 젖은 바지는 비닐에 넣어 웅이 가방에 넣는다.

<2015. 6. 9. B어린이집 씻기 관찰일지>

영아 교사는 개별적으로 정성스럽게 세심한 손길로 씻기기, 배변처리, 옷 입히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활동을 돕는 동시에 다섯 명의 영아들을 한꺼번

에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에서도 교사는 기저귀를 갈면서 나머지 영아들의 놀이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했으며 놀이 중간에 공격적 행동 양상을 보일 경우 달려가 갈등을 중재해야 했다. 이러한 역할은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아들의 안전과 관계된 일이므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은 극심한 육체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책 나가서도 수시로 안아달라고 하고 안걸어 갈려고 하고 그 자리 주저앉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난감해요. 그리고 안아주면 나머지 아이들 돌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죠

<2015. 4. 24. A 교사면담>

웅이는 항상 엄마가 업고서 재웠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업어주거나 안아주지 않으면 절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아주지 않으면 너무 울어서 다른 아이들 자는데 방해가 되구요. 그래서 4월 한 달을 안고서 재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허리디스크가 온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누워서 재우려 해 보았지만 아이는 습관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자지 않아서 거의 5월까지 안고 재웠어요.

<2015. 4. 21. B교사면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거의 떠먹여 주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먹는다고 보다는 돌아다니면 엄마가 밥그릇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먹인 덕분에 거기에 익숙해 있는 영아들을 자리에 앉혀서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교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한명씩 떠먹여야 하고 숟가락질 할 수 있게 도와야 해요.

<2015. 6. 23. B교사면담>

개별적으로 민감하게 보살핌을 받는 것에 익숙한 영아는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짜증을 부리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이 될 때 까지 울음으로 표현

하였다. 어린이집 등원 시 분리불안에 심하게 우는 영아를 달래는 과정에서 교사는 안아주거나 업어주어야 했으며 산책길에서도 영아는 걷기가 힘들 다며 잘 걷지 않으려 하였다. 급·간식 시간에는 돌아다니는 영아들을 일일이 앉아서 먹도록 이끌거나 떠먹여야 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시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잠시간에는 업어주거나, 안고 흔들어주거나 옆에 누워 토닥여 주어야 자는 습관 때문에 교사는 영아들의 개별적 생리적 요구에 맞추느라 힘든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영아교사는 허리디스크, 무릎관절, 손목관절에 무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부모님께 보낼 다섯 명의 개별영아의 하루 일과 보고수첩을 작성하는 일과 영아의 일과 활동사진 구별하여 카페에 올리기, 영아들 실수한 빨래 감들 애벌빨래하여 넣기, 관찰일지, 보육일지 작성, 영아 도시락, 빈 약통을 각자 확인하고 영아의 가방 속을 확인한 후 정리한다.

<2015. 5. 15. B어린이집 낮잠시간 관찰일지>

어머니들은 내 아이만 보지만 교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섯 명을 다 돌보아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집에 5명의 쌍둥이를 낳아서 엄마 혼자서 하루종이 아이들을 돌본다고~ 그러면 아마 교사에게 함부로 요구할 수 없을 걸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내 아이만 보니까요. 왜? 내 아이를 돌보지 않는거야? 교사는 뭘 하는 거야? 심지어 원장님도 그러신다니깐요. 도대체 무얼 했냐고.

<2015. 7. 24. A교사면담>

영아가 모두 낮잠 자는 동안에는 영아들을 돌보느라 미뤄둔 보육업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체크, 일과 동안 영아에 대해서 매일 학부모에게 보고하는 알림장 기록하기, 보육과정 평가, 영아관찰일지, 사진작업, 카페활동사진 올리기 등으로 여전히 바쁜 모습이였다. 뿐만 아니라 영아들의 배변훈련으로 젖은 바지와 속옷을 애벌빨래하는 일, 빈 도

시락 깨끗이 정리하여 가방에 넣기 등의 업무 외에도 교사는 영아들이 낮잠 자는 동안 영아들의 곁에 머물며 수시로 깨서 우는 영아를 토닥여 주거나, 이불을 덮어주거나, 화장실 도움을 주기 등으로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는 매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느라 최선을 다하지만 내 아이만 생각하는 학부모의 태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 영아들 돌보느라 너무 힘 들었는지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자마자 쓰러져 기침과 고열로 고생을 했죠.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 나겠는거예요. 정말 출근을 못하겠는데 만일 내가 결근하면 누가 우리 반을 돌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 힘들 것 생각하면 도저히 누워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학기 초부터 교사가 결석하면 어머니들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픈 몸 이끌고 어린이집 출근을 했죠. 하지만 아프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잖아요. 아픈 기색도 내면 안 되고. 그날은 정말 약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2015. 7. 21. B교사면담>

위의 사례에서도 영아교사는 영아들을 돌보느라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감기 몸살과 고열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쉴 수 없음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영아들은 낮가림이 심하고 영아의 개별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 양육자인 담임이 돌보야 하며 다른 교사가 돌볼 경우 불안해서 울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아파도 출근을 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며 학부모 앞에서 힘들거나 아픈 기색을 보일 수 없다며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영아들은 놀면서 장난감을 수시로 입으로 가져가서 빨기 때문에 청소할 때 매일 씻고 소독을 하지만 매주 금요일에는 교실 모든 장난감을 하나하나 씻고 말려야 해요. 소꿉놀이부터 조그만 블록까지 씻다보면 내 옷이 다 젖을 정도예요. 솔직히 종일 보육으로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교실에 모든 장난감을 화장

실에 쌓아놓고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휴~너무 힘들어서 주말에는 아무 일 못하고 집에서 뻘어요.

<2015. 8. 14. A교사면담>

영아교사가 일과동안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청결과 관련하여 수시로 장난감을 씻고 소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들은 놀이하면서 장난감을 수시로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으로 매일 놀잇감을 씻고 소독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사례에서도 교사는 매일 하루일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하고 놀잇감을 씻고 소독하는 일을 하지만 영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요일마다 대청소를 하였고 교실의 모든 장난감을 씻고 소독하고 말려야 했다. 영아교사는 이러한 어린이집 대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3)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를 거듭해왔다 (황옥경, 2013). 주로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을 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로 인해 어린이집 환경의 질제고와 영아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직무 만족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교사의 행복한 삶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봄에 볼 수 있는 꽃을 프린트해서 동그란 모양의 노란색 바탕에 붙여 링에 고리로 끼워 저희반 아이들 가방에 걸려고 했어요. 그래서 코팅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보시고는 바탕 노란색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한 초록색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뜻대로 다시 만들었죠. 그런데 꽃 색깔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원장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죠.

<2015. 7. 24. A교사면담>

어제는 학부모 상담이 왔나 봐요.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동물모형에 도장 찍기로 무늬를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순간 저희반 아이들이랑 깜짝 놀랐죠. 그런데 만 1세 정도 되어 보이는 영아랑 어머니, 원장님이 불쑥 들어오더니 활동을 교실을 살펴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 버렸죠.

<2015. 7. 24. A교사면담>

영아교사는 원장이 보육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고 자율성을 부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원장은 장시간의 영아 돌봄으로 지친 영아교사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고유권한인 보육활동까지 간섭을 하였고 보육활동 중에도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와 교실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럴 때마다 교사는 존중받는다느낌 보다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교실 출입문에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게 조그맣게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실에서 놀이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밖에서 누가 쳐다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면 원장님이 그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도 수시로 들여다보니까. 웬지 감시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2015. 7. 21. B교사면담>

교사는 혼자서 모든 영아들을 한꺼번에 보살펴야 하는 바쁜 상황에서 원장이 도움을 주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움보다는 교사가 잘하고 있나? 수시로 들여다보는 모습에서 오히려 감시 받는 느낌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영아들을 따라다니며 쉴 틈 없이 돌보느라 그날그날 처리해야 할 보육업무들이 늦어졌을 때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원장은 오히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다른 교사와 비교까지 하는 모습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갖기도 하였다.

태영이는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엄마 옷을 붙잡고 심하게 운다. 교사는 태영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해보지만 계속 운다. 그러자 어머니는 “태영이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해요. 갑자기 왜이런지 모르겠네. 태영아, 왜 그래?” 한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나눈 후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 “선생님, 태영이에게 잘 좀 신경써주세요. 애가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러잖아요. 엄마가 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다. B교사는 원장의 그러한 말투에 얼굴이 굳어지면서 힘든 표정을 짓고 교실로 들어간다.

<2015. 7. 21. B어린이집 등원 관찰>

태영이가 수두로 일주일간 집에서 쉬고 다시 어린이집에서 오니 불안하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생각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아니까~당연히 울고 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다시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될 텐데~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원장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2015. 7. 21. B교사면담>

영아교사는 보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원장이 학부모 관계에서 완충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도 영아가 몸이 아파 일주일 쉬고 등원했을 때 다시 분리 불안을 겪을 수 있음을 부모에게 이해시키고 재적응의 기간이 필요함을 부모에게 알려주기 보다는 교사의 돌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서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한명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장은 학부모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사를 질책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때 회의감과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만 1세는 무조건 깨물잖아요. 친구가 옆에 있어도 깨물고. 뺏어도 깨물고, 아이가 심하게 울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깐 교사도 일일이 영아들의 옷을 다 벗겨 검사하지 않으면 모른 채 그냥 집에 보내게 되잖아요. 교사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하면 일일 보고서에 쓰거나,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밤중에도 문자가 와요.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정말 이럴 때 교사는 죄책감이 들죠.

<2015. 5. 29. A교사면담>

아이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교사가 잘 못 봐서 그렇다. 교사는 그 시간에 무얼 했나? 손은 하루에 몇 번을 씻는 거야? 어디서 다쳤어요? 거기 부딪친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긁히면 그렇게 되나요? 선생님 안 다치게 잘 좀 봐 주세요. 이것 보면 저녁에 아빠한테 혼나요. 할머니 댁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어린이집에서 잘 안 먹나 봐요. 배가 고프지 집에 와서 엄청 먹었어요. 낮잠을 조금만 재워주세요. 밤에 잠을 안자요. 응가하고 꼭 물로 씻어 주세요. 빨래 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배변훈련 신경 써 주세요. 집에서는 실수를 거의 한하는데…….

<2015. 6. 9. B교사면담>

어린이집 영아들의 일과 시간이 늘어나고 교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아반 교사에 대한 역할의 책무성과 학부모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는 발달 특성상 의사소통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영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학부모는 헌신적으로 열심히 돌보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보다는 교사에게 보모처럼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태도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존감 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반 같은 경우는 영아 5명에 교사 2명이 적당한 것 같아요. 늘 질 높은 보육

을 강조하는데 정말 한명씩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거의 대부분 교사의 손길을 거치고 교사의 시선 아래 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데 그런 영아들을 한 교사가 5명을 돌본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정교사 1명에 보조교사 1명 이렇게 보육하는 것이 교사에게도 영아에게도 최선이고 늘 사람들이 외치는 양질은 보육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2015. 6. 9. B교사면담>

요즘 영아반은 발달적 특성들 때문에 팀티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더 힘든 것 같아요. 교사 두 명이 열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 한명이 10명을 돌봐야 해서 더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한 교사가 영아 한명을 씻길 때 나머지 교사는 9명을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하는 일도 두 배 모든 것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2015. 8. 14. A교사면담>

현재 1세 영아반 교사는 교사 한 명이 5명의 영아를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사 대 영아비율로 교사는 혼자서 한시도 쉴 틈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영아반을 팀티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팀티칭은 영아와 교사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음을 이야기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도 교사 한명이 오히려 열 명의 영아들을 돌보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두 배의 힘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아보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사 대 영아 비율에서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솔직히 교사 혼자서 하루 종일 영아들보기도 바쁘는데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업무들은 왜 그리 다양하고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사 한명이 영아들을 하루 종일 돌보면서 매일 처리해야 할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야 하나까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의 질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2015. 7. 24. A교사면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한국보육진흥원, 2015)이다. 특히 바쁜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할 수 없을 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기준이 바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이지만 교사는 영아들 돌보는 역할과 평가기준에 적합한 보육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실제로 어린이집 평가기준들은 보육환경이나 보육관련 서류들이 대부분으로 겉으로 보여 지는 부분인 것으로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국가로부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야하며 교사에게는 영아들을 보살피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영아반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영아들을 보살피면서 보육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보여 지는 부분으로 인해 실제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교사에게 요구만 할 뿐 교사의 환경이나 근무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늘 보육 정책에서 아동중심을 강조하고 학부모, 시설의 원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결정에 항상 교사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보육은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교사의 권리는 늘 바닥이죠. 어린이집 교사도 하루 종일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5. 8. 28. 전자메일. B교사면담>

영아교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영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지만 근무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영아교사는 보육의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교사의 권리보다 학부모와 영아의 권리가 우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교사는 영아들을 장시간 돌보는 일을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기대하고 있었고, 영아교사의 권리를 위해서는 교사의 보육정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난달에 교사교육이 있었어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대요. 한 명의 교사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침 당직에 11시간 이상 종일 보육하고 30분 이상 운전해서 교육장으로 갔죠. 몇 천 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왔어요.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학대에 관한 이야기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시간만 낭비되는 느낌? 집에 오니 11시 인거 있죠? 아~휴 다음날 어떻게 근무하라고~ 당직이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요.

<2015. 8. 14. A교사면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뒤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CCTV 설치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근무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014). 이 법안은 최근 몇몇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CCTV 설치의무화를 통과 시켰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사를 모아놓고 집단 아동학대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아교사는 종일 보육으로 지친 상태에서 밤늦게 까지 이루어지는 교사교육은 다음 날 영아보육에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CCTV에 대해서 얘기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순전히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교수 준비로 밤새우고 평가인증으로 밤새우고 우는 영아들 안아 주느라 허리, 어깨, 손목 터널 증후군 앓고 있고, 하루 종일 영아들 울음소리에

시달려 녹초가 된 채 살아 온 게 벌써 5년인데 그래도 이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거든요.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지만 ~아이들 가르치는데 도움 되는 프로그램들 틈나는 대로 수강신청해서 듣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보육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어린이집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종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니~교사의 인격은 없는 걸까요?

<2015. 8. 14. A교사면담>

위의 사례에서 영아교사는 보육교사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육정책에 대해 교사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순수하게 아이가 좋아서 보육교사를 시작하였고 하루 종일 영아들을 돌보느라 허리, 어깨, 손목터널 증후군을 앓으면서도 천직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지만 폭행의 문제가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문제인 것처럼 전체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에 영아교사는 감시받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모든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만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첫째,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 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유아교사와 구분되는 영아보육의 특성으로 영아교사 역할수행에서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원시간 유아교사는 분리불안으로 몸부림치고 우는 영아를 안고 달래는 과정, 교사 혼자서 다섯 명의 영아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등원시간의 경우, 영아들은 영아의 애착, 분리불안, 개별적 기질, 생리적 요구와 특성 등으로 인해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정서조절이 미숙한 영아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영아교사는 영아를 맞이하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렇듯 등원 과정에서 학부모와 원장이 영아의 등원 거부의 원인으로 교사의 돌봄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일 때, 영아교사는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홍윤정(2004)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보호자의 특성, 아동의 기질, 교사에 비해 많은 아동 수를 지적하였다. 양은주(2010)와 유혜선(2014)의 연구에서 영아의 개별적 기질은 어린이집 적응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의 등원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원시 영아의 반응을 영아교사의 돌봄의 문제로 직결시키는 원장과 학부모의 불신에 대해 영아교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것은 교사의 돌봄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가치가 커질수록 영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유민아와 이주리(2010)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모와 원장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영아가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며 교사의 보살핌에 신뢰하는 태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내외놀이 및 집단 활동에서 영아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영아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한 충동적 행동, 대근육 위주의 신체활동에 비해 신체조절력의 미숙,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박남희(2014)의 연구에서 만 1세경에는 소유욕이 강하여 나누어 쓰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신희연과 김명순(2005)의 연구에서 교사가 한 영아에게 관심을 기울일 경우 다른 영아를 방치하게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부주의로 인해 물리기, 할퀴 외에 타박상, 추락, 자상, 골절로 인한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난다(박상선, 2013; 장소영, 2012)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일과 활동 중 씻기, 배변 활동, 급·간식 시간에는 자조 기술이 부족한 영아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영아교사는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는 영아들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에 맞춰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을 차근차근 지도해야 하는 점과 동시에 다른 영아들을 보살펴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영아의 특성상 같은 나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시기이므로 영아의 개별적 특성과 생리적 요구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점도 영아교사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

었다. 이러한 영아교사의 어려움은 손 씻기가 중요하고 매일 반복지도를 해야 하지만 여러 영아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매번 손 씻기의 어려움을 강조한 연구(이윤영, 배지희, 김은혜, 2013)와 다른 활동을 진행하면서 배변 처리도 함께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연구(박남희, 김대균, 2014), 어린이집 교사의 식사지도의 어려움에서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배변훈련 등 다중적 역할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강경희, 전홍주, 2012)에서 확인된 바 있다.

낮잠시간의 경우 영아교사는 혼자서 영아의 개별 낮잠 방식에 따라 낮잠을 채우면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은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낮잠을 자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것에 대해 불편함 혹은 불안감을 느껴 낮잠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영아교사는 한 교실에서 잠이든 다른 영아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는 영아를 달래야 하며(박남희, 이대균, 2014), 개별적 낮잠 욕구를 일일이 수용하는 역할수행과 다섯 명의 낮잠을 동시에 돌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귀가시간의 경우 영아교사는 1세 영아의 발달 특성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가 영아의 일과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종종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태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돌보는 데 있어 학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 과도한 요구, 영아교사를 아이 돌보는 보모로 여기는 태도(김혜경, 이미란, 2012; 이상복, 도명애, 2010; 이유정, 2013)로 인해 영아교사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하루일과 중 영아의 점심식사(강경희, 전홍주, 2012), 기본생활지도(박남희, 이대균, 2014) 등과 같이 특정 일과에서 영아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영아교사의 어려

움은 영아가 등원하는 순간부터 귀가까지 교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만 1세 영아는 배변훈련, 애착, 초기식습관, 말하기, 자기중심성, 충동적 행동 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로서 유아교사에 비해 교육자역할 보다는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육자의 역할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장영희, 2007). 영아교사가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영아에게 언어로 지도하기 어렵고 모든 영아를 개별적으로 돕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만 1세 영아반 교사로서의 어려움으로, 이는 다른 시기와 구분되는 특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과활동에서 경험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연령을 고려한 영아교사교육과 실제 보육과정에서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되며, 만 1세반 영아교사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영아의 질적 보육과 교사의 역할수행에서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영아교사는 긴 시간의 중일 보육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업안내서(2015)에서는 ‘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외 시간은 원장과 교대 근무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영아교사는 담임이 부재할 경우 영아의 불안감과 교사의 퇴근 후 자녀가 다른 교사에게 맡겨지는 것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 밀린 보육업무 처리 등으로 8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장시간의 중일 보육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와 일치한다(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민혜영, 윤미정, 2011). 하지만 영아교사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연장근무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원장의 태도에 비인간적인 처우라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전국보육실

태조사(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3)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모든 시설 유형의 어린이집 교사 중에 78%가량이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아 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영아교사의 어린이집 삶의 질재고 측면에서 보육시간 단축, 초과수당지급 등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만 1세 영아반 교사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영아들을 어린이집 일과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아의 하루일과는 정해진 시간보다 정해진 순서대로 융통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일과를 예측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장영희, 2015)고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영아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간식과 점심을 먹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손 씻기, 기저귀 갈기를 거부하고,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울거나 계속 실외놀이만 하려고 떼쓰는 행동, 장난감 정리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영아교사는 하루 종일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또한, 일과를 구성하는 내용과 시간은 영아의 발달수준, 월령, 영유아의 적응 정도, 일과시간, 어린이집 시설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하루일과 계획에 따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에서도 일정기준에 따른 일괄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제 어린이집의 상황과 여건 및 영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일상생활영역과 놀이 활동 영역에서 영아의 발달적 특성, 생리적 욕구, 움직임,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인해 영아교

사는 영아를 보살피는 데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다. 영아들은 유아들과 달리 이동능력이 부족하므로 보육실 내에서 모든 기본생활행위가 해결되도록 보육실 내부에 화장실을 배치하여야 한다(최안나, 2007). 그러나 실제 어린이집의 구조를 보면 화장실이 교실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어, 영아교사는 영아의 씻기 및 배변훈련 과정을 보살피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희(2007)는 어린이집 시설을 설계할 때는 영아뿐 아니라 교사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물리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을 구성할 때 보육활동 공간과 휴식공간이 분리 하여 배치해야 하지만(보육진흥원, 2015), 영아의 보육활동과 휴식공간이 한 공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최효경(2006)의 연구에서도 영아용 실내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 등의 시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최은아(2007)의 연구에서도 실내놀이터, 영아반 실내화장실 확보, 낮잠실 확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영아를 위한 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아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울거나 짜증 부리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영아교사는 영아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영아교사는 영아의 개별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돌보느라 하루 종일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 동료들과도 소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세 영아교사들은 수업하는 대부분 시간을 동료와 고립되어 자신의 세계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박은혜, 1996)고 한 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정란(2004)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휴식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에는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제한된 행동과 억눌린 감정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동료교사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 질 때임을 인식하고, 영아교사의 행복한 어린이집 근무를 위하여 교사들끼리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만 1세 영아반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의 의미

첫째, 만 1세 영아학급 하루일과에서 영아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교사로서 바람직한 정서를 표출해야 하는 어려움은 정서적 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아교사는 일과 활동 중 영아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당혹감과 두려움, 반복적인 안전지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반복되는 사고에서 느끼는 좌절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에 대해 교사를 추궁하는 원장과 학부모의 신뢰하지 않는 태도에서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여인우(2014)의 연구에서도 영아교사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영아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직무수행에서의 우울감, 낮은 처우와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자괴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영아교사는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다른 영아를 돌보아야 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피로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아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영아교사는 항상 영아와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오랜 시간 동안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면서 억눌린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아를 돌보는 영아교사의 특성상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에 대해 원장이 유아교사와 비교할 때에는 굴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는 영아를 돌보는 동안 내면적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이를 감추고 늘 온화하고 밝은 미소

를 보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은 교사의 역할수행, 영아의 발달과 보육의 질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문혜련, 강재희, 2015; 조혜진, 김수연, 2012) 인식하고, 영아교사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 및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와 영아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영아를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보느라 동시다발적 역할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볼 때 육체적인 노동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영아교사의 육체적 어려움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동시다발적 역할 수행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적으로 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배변 훈련하기, 기저귀 갈기, 옷 입히기 등과 같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영아교사에게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노동이었다. 또한, 하루일과를 관찰한 결과, 영아들은 불편한 상태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보내는 울음이나 칭얼거림으로 의사 표현하였다. 이러한 영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영아교사의 수시로 업어주거나, 안아주는 등의 돌봄 행위는 유아교사의 돌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영아들의 특성으로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어려움(박정빈, 김도심, 유선희, 2010)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 1세 영아학급의 하루일과를 참여 관찰한 결과 영아교사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 외에도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인해 영아들은 더 잦은 갈등 양상을 보였고, 자주 부딪치는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아는 오감 활동 위주의 놀이, 배변훈련과 기저귀 갈이 등으로 영아를 자주 씻겨 줘야 하는 상황에서 영아교사는 수시로 영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옮겨 다녀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영아교사들의 육체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영아교사의 육체적 피로가 계속 누적될 경우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교사 영아의 상호작용 질을 떨어뜨리고 이직을 초래하여 보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기존 연구결과(고효자, 2009; 김옥주, 조혜진, 2010; 김유진, 2003; 정영실, 2011)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영아교사에 대한 환경개선과 함께 영아교사의 동시다발적 노동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만 1세 영아반 영아교사가 경험하는 하루일과에서의 어려움은 영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원장, 학부모, 국가로부터 교사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영아교사는 영아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사소한 반응에도 교사를 질책하는 원장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 자존감의 상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장으로부터 인정, 칭찬, 존중 등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보육교사가 소진을 더 적게 경험한다는(김지은, 안선희, 2007; 박소윤, 서현아, 2015)의 연구와 동료교사의 우호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을 때 아무리 힘든 노동이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문혜련, 강재희, 2015)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보살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아교사의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 중에서는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교사의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김연아, 김경은, 2012)와 일치하지만 원장,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직무만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장미순, 201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단순히 한가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영아보육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의 복합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명의 영아교사가 다섯 명의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원장, 동료, 학부모들은 영아교사의 전문성, 책무성으로 간주하고 영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육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아

교사, 원장, 학부모, 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는 공동양육의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를 겪었는데(황옥경, 2013) 주로 영아와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정책을 시행되면서 교사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1세 영아는 교사 한 명이 5명의 영아를 보살피는 것을 원칙(보육사업안내서, 2015)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종일 보육체제에서 한 교사가 영아 다섯 명을 돌보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 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2013)은 영아교사의 전문성의 어려움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할지라도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이 높을 경우 보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영아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영아 대 아동비율을 낮추거나 보조교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김보들맘, 신혜영, 2000; 신희연, 2005; 윤혜미, 권혜경, 2003)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영아교사가 단독으로 영아들을 돌봄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체적으로 팀티칭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팀티칭에서 동료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교사의 부정적 정서(김효정, 임자영, 이대균, 2011; 유지선, 2014; 이소연, 2015)가 강화되어 영아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아교사는 영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보육 과정에 따른 평가인증제(한국보육진흥원, 2015)에 따라 영아를 돌보는 역할과 평가 기준에 적합한 보육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김연, 2012)에 따르면 ‘업무가 끝난 후 집으로 가져가서 작성해야 한다.’며 업무량의 과다함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탁상공론식의 지침으로

인해 영아교사에게 또 다른 문제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와 폭넓은 기준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는 아동학대 사건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한 영유아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영유아법 개정안, 2014).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영아교사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CCTV와 같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교사로서 자괴감과 회의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영아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영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그에 따른 처우나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어린이집 교사의 영아 폭행 문제를 모든 어린이집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비인간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따라서 보육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영아교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 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영아교사 역할수행에서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는 영아의 등원시간 나타나는 분리불안, 실·내외놀이 및 집단 활동 시간 영아의 충동적 행동, 신체조절력의 미숙, 안전사고 등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교사는 일과 활동 중 씻기, 배변 활동, 급·간식 시간에는 자조 기술이 부족한 영아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낮잠시간에는 혼자서 모든 영아의 개별 생리적 요구에 따라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귀가시간에는 학부모와 영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종종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태도로 인해 영아교사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는 등원에서 귀가까지 일과활동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의 어려움과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영아교사는 긴 시간의 종일 보육,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시키기, 비효율적 공간 구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동료와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긴 시간동안 종일보육을 하면서 억눌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영아교사의 어려움이 갖는 의미는 정서적 노동, 육체적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으로 볼 수 있다. 영아교사는 부정적 정서를 숨기고, 외적으로는 항상 교사로서 바람직한 정서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아의 발달적 특성상 개별적 보살핌과 가르침에 대한 교사로서의 동시 다발적 역할수행은 영아교사의 육체적 노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교사는 교사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영아들을 보살피지만 원장, 부모, 국가로부터 적절한 신뢰와 전문성 인정,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영아교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학급 하루 일과에서 경험하는 영아교사의 어

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 만 1세 영아 두 학급의 하루일과를 참여관찰하고 담임교사 2명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을 고려하여 만 1세 영아학급 하루 일과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더욱 다각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1 학기에 걸쳐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진행하였으나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참여관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후속연구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1세 영아 학급의 하루 일과에서 경험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을 관찰하고 학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 백경숙(2005). 아동발달. 서울 : 창지사.
- 강경희, 전홍주(2012). 어린이집 교사의 식사지도의 방법과 지도과정의 어려움. **유아교육학논집**, 16-1, 229-303.
- 강이슬, 김민경(2011). 영아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325-352.
- 고윤희(201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호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효자(2009).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금주, 김연수 공저(2014).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곽금주, 성현란, 자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 공저(2005). **한국 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김경란(2006). 놀이에 나타난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경숙, 박지영(2010). 어린이집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경험 및 안전교육. **유아교육보건행정연구**, 14(4), 7-31.
- 김보들맘, 신혜영(2000). 어린이집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53-276.
- 김민성(2007)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공간 구성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2007). 집단활동에서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진(2002). 영아보육의 질적평가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희(2003).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 일치성 및 교사지지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애, 김수향(2014). 영아반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57-80.
- 김순환, 전셋별(2010). 경력에 따른 영아반 교사들의 어려움과 관심사, 현직교육 요구에 관한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239-267.
- 김옥주, 조혜진(2010). 영아반 초임교사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열린 유아교육연구**, 17(2), 105-126.
- 김연(2012).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2-90.
- 김연아, 김경은(2012). 영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1), 105-121.
- 김유정, 염지숙, 손은경(2004). 탐색 활동을 기반으로 한 영아 교육 활동에 나타난 영아들의 지식 구성 양상. **중앙유아교육학회**, 8(4), 33-63.
- 김유진(2003).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숙, 조희숙(2011).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의 교사-영아, 교사-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1(6), 121-146.
- 김은영, 권미경, 조혜주(2012).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운영 및 교사의 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 김재은, 이연섭(1997). 아동의 인지발달. 서울: 창지사.
- 김정미(2002). 보육시설 영아반 실내·외 환경실태와 교사인식에 관한 연

- 구: 대전시 보육시설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중근(2004). 영유아발달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정확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2006). 어린이집에서 영아보육이 지니는 의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현, 양옥승(2009). 어린이집에서 영아보육이 지니는 의미 : 보살핌과 가르침. **유아교육연구**, 29(2), 163-189.
- 김지은, 안선희(2007). 영아 및 유아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근무여건,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47-164.
- 김효정, 임자영, 이대균,(2011). 팀티칭 경험이 어린이집 영아반 경력교사에게 주는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521-551.
- 김희진, 김언아, 홍희란(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김혜경, 이미란(2012). 어린이집 개원하기. 고양 : 공동체.
- 김혜금, 임미정, 차승환, 전영희, 길미애(2015). 0~2세아 영아보육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노희연(2014).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일과의 의미 탐색: 0,1세 영아반의 배변 갈기, 낮잠자기, 간식 및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4), 457-478.
- 대한소아과학회(2014). 한국소아 발육 표준치.
- 류경(2000). 보육시설의 초기적응과정의 영아행동 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마혜진(2014). 영아교사의 정서역량 증진을 위한 현직교육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혜련, 강재희(2015). 영아교사의 정서지능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2), 121-136
- 민혜영, 윤미정(2011).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동 교육**, 18(3), 147-168.
- 박남희, 이대균(2014).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2), 41-69.
- 박상선(2013). 영아반 보육교직원의 안전지식 및 안전실태.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서소정(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6(5), 15-30.
- 박소윤, 서현아(2015).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반 보육교사의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 11(2), 331-354.
- 박정자(2013).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안 분석.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영(2008). 영아보육환경의 질적 수준 및 교사의 요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정(2003).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직무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혜(2005).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2010).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 **변형영유아교육연구**, 4(2), 65-87.
- 박찬화, 권연희, 최목화(2012). 어린이집 유아반의 일과 유형분류 및 일과 유형별 교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837-848.
- 배기조, 성현란, 이지연, 곽금주, 장유경, 심희옥(2004). 영아 및 유아의 가

- 장놀이와 모방의 발달적 변화. **인간발달연구**, 제 11권 제 3호, 83-99.
- 백지현(1997). 유치원 교실·유희실 공간의 실내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12).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보건복지부(2013). 제 3차 표준보육과정.
- 보건복지부(2014). 2013년 보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보건복지부(20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5). 2015 평가인증 안내(40인 미만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 삼성복지재단(2003). 영아 프로그램: 총론. 서울: 다음세대.
- 신귀순(2006). 보육의 질이 영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수진(2015).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보람과 어려움.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미경(2013). 어머니의 애착안전성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리더십 및 사회적 조망수용능력.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17(3), 41-55.
- 심성경, 변길희, 박주희, 류경희, 박수경(2014). 유아발달. 서울 : 창지사.
- 성은영, 최승연(2014). 만 1세 신입영아교사의 어려움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3), 385-403.
- 신경주(2011). 영아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 분석.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연(2005). 영아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연, 김명순(2005).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 간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9(2), 297-318.
- 안지혜(2014). 영아초기적응과정에서 영아보육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적응기간의 의미. **한국보육학회지**, 14(3), 81-105.
- 양옥승(2006). 삶의 맥락에서의 영유아 보·교육과정 탐구. **유아교육연구**, 26(6), 253-267.
- 양옥승, 최경애, 이해원(2015). 영유아교육과정. 서울 : 학지사.
- 양은주(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교사의 애착형성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인우(2013). 영아교사의 정서적 어려움과 정서적 지원 요구에 관한 이야기.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민아, 이주리(2011).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양육태도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11, 333-356.
- 유연화, 최경애, 이정란(2004). 영아보육 일과에 나타난 질적 보육의 장애요인분석. **경북논총**, 8, 307-330.
- 유지선(2014). 어린이집 영아반 팀티칭 운영현황 및 교사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선(2014). 영아의 기질과 교사-영아관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림(2005).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인식도와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미(2008).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일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미(2009).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일과. **교육과학연구**, 40(3), 171-193.
- 이기숙, 장영희, 이윤경, 정미라, 심성경, 손순복, 김영아 공저(2015). 영아

- 발달. 파주: 양서원.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윤선화(2014). 영유아안전교육. 파주: 양서원.
- 이다운(2006).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화(2015). 영아보육의 질 재고를 위한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및 지원 방안: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제고. 육아정책연구소.
- 이은혜, 김온기, 이미화, 이재선(1995).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의 실제. 서울 : 서울과학사.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1995). 유아교사론. 서울 : 양서원.
- 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2013). 영아보육 질 재고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
- 이상복, 도명애(2010). 어린이집·유치원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107-135.
- 이소연(2015). 어린이집 영아반 팀티칭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2014). 영유아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이영, 이정희, 김온기, 이미란, 조성연, 이정연, 유영미, 이재선, 신혜원, 나중혜, 김수연, 정지나(2009). 영유아발달. 서울 : 학지사.
- 이유정(2013). 어린이집 교사의 적성과 행복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운영, 배지희, 김은혜(2013). 영아반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기대 및 요구. **아동교육**, 22(2), 201-224.
- 이정란(2004).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의 힘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회**, 24(2), 199-221.
- 이정희, 조성연(2011).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과 시설장, 동료교

- 사와 가족의 사회적지지. **아동학회지**, 32(1), 330-713.
- 이진희, 임진형(2004). 영아전담보육교사의 어려움과 요구분석. **한국보육학회지**, 40(3), 171-193.
- 이한영(2005). 하나유치원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의 운영과 놀이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순(2012).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유경(2004).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6권 4호, 227-241.
- 장소영(2012). 영아대상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및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진성(2011). 어린이집 영아전담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희(2007).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전홍주, 최유경, 최항준(201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 : 의사소통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7(3), 365-384.
- 정미라, 배소연, 이영미(2011). 영유아를 위한 건강 및 영양교육. 파주 : 양서원.
- 정미숙(2007).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실(2011). 영아반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2014).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에 관한 연구 : 환경변인 및 개인변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2), 75-96.

- 조성연, 이정희, 천희경, 심미정, 황혜정, 나종혜(2005).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신정.
- 조복희(2014). 아동발달. 서울 : 정민사.
- 조성연(2006).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실습과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3급 보육교사양성과정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연구**, 2(1), 45-69.
- 조성연, 구현아(200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 **아동학회지**, 26(4), 55-70.
- 박찬욱(2015). 영아보육과정. 서울: 정민사.
- 조혜진(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논집**, 11(2), 237-263.
- 조혜진, 김수연(2012). 영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89-208.
- 지현숙(2012).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의 운영실태 및 교사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애(2002). 영아보육시설 평가기준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목화(2002). 보육시설 공간 디자인. 서울 : 창지사.
- 최석란(2007).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보육교사의 역할. **사회과학논총**, 제 14집, 97-116.
- 최안나(2007). 영아보육시설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아(2007). 영아보육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현(2000). 영아특성 및 보육환경 변인이 영아의 놀이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현, 권경숙(2012). 미혼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 **육아지원학회**, 7(2), 75-102.
- 최효경(2002). 보육시설의 영아보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효영(2010). 영아반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참여의 경험과 그 의미.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표갑수, (2010). 한국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집.
- 탁정화, 황해익(2011).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11-539.
- 한유미, 오경숙(2010). 영아반 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5(1), 291-309.
- 허영숙(2014).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윤정(2004). 영아의 보육시설 초기 적응 지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옥경(2013).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81-100.
- 황해익, 송연숙, 정혜영, 남미경, 정혜영, 유수경(2015). 보육교사론, 파주: 정민사.

Berk, L. E., & Winsler, A (1995).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Vygotsky and Early childhood-Education*. Washington, DC: NAEYC.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Decker, D. A., & Decker, J. R. (2004).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8th ed.). NJ: Merrill-Prentice Hall.

Denham, S. A., Renwick-DeBardi, S., & Hewes, S. (1994).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ers: relations with emotion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4), 488-508.

Kopp, C. B. (1987). *The growth of self-regulation: Caregivers and children*.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34-55). New York: Wiley.

Piaget, J. (1977년). *The Essential Piaget*. New York : Basic Books Inc.

Rohe, w. and Patterson, A. H(1974). *The effects of varied levels of resources and density on behavior in a day care center*. In Carson, D. H (Ed). Man-environment intera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pp. 167-171), part III.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Inc.

Sopradley, J. P(1980).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이희봉 역).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원저 1998년 출판).

부 록

부록. 1 만 1세 영아의 하루일과 활동별 세부관찰자료

<부록 1> 등원시간 활동과 정의

세부일과	정의
보호자와 헤어지기	보호자와 같이 등원하였을 경우, 작별하는 과정의 행동
신발 벗기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넣는 행동
교실로 들어가기	자신의 교실로 들어가는 과정의 행동
교사와 인사	교사와 인사하는 과정의 행동
출석표시 및 알림장 꺼내기	출석표를 사용할 경우, 출석 표시하는 과정의 행동과 알림장을 꺼내는 과정의 행동
또래와 인사	개인 또는 집단의 또래를 향해 인하하는 행동
옷/양말 벗기	겉옷이나 양말을 벗어 정리하는 과정의 행동
소지품 정리	가져온 소지품을 장에 정리하거나 교사에게 제출하는 과정의 행동

<부록 1-2> 실내자유놀이시간 활동과 정의

세부일과	정의
놀이	언어, 쌓기, 역할, 창의적 표현, 탐색/조작, 대근육 등 영역 에서의 활동
대화	교사 또는 또래와 일상 또는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과 정의 행동
놀이의 전이/놀이정리	개별적으로 한 영역에서 놀이한 후 정리하고 다른 영역으 로 이동하는 과정의 행동 또는 놀이가 끝나고 영역별 또는 학급 전체가 정리 정돈하는 과정의 행동
목적 없는 놀이	그 외 배회하기 등 자유놀이시간에 관찰되는 목적 없는 행 동

<부록 1-3> 실외자유놀이시간 활동과 정의

세부일과	정의
놀이	종합 놀이기구, 그네, 단독 놀잇감, 탈것, 동·식물 관찰, 물/모래 놀이, 뛰어 다니기 등의 놀이 행동
대화	교사 또는 또래와 일상 또는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의 행동
놀이 외 전이/놀이정리	실외로 이동하기 전에 겐옷을 입거나 신발을 갈아신는 행동, 개별적으로 한 영역에서 놀이하고 난 후 정리하고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행동 또는 모든 놀이가 끝나고 영역별 또는 학급 전체가 정리 정돈하는 과정의 행동
목적 없는 놀이	그 외 배회하기 등 자유놀이시간에 관찰되는 목적 없는 행동

<부록 1-4> 급·간식시간의 세부 일과와 정의

세부일과	정의
그릇 준비	교사 또는 영아가 급·간식과 그릇을 가져와서 준비하는 과정의 행동
음식배분	교사 또는 영아가 급·간식을 배분하는 과정의 행동
기다리기	급·간식 과정에서 음식을 받거나 치우기 위해 기다리거나 다 먹고 기다리는 관정의 행동
의식	어린이집에서 정한 의식(예, 기도 말, 노래)을 말하는 과정의 행동
먹기	급·간식을 먹는 과정의 행동
그릇정리	교사 또는 영아가 급·간식 후 그릇을 정리하는 과정의 행동

<부록 1-5> 휴식 및 낮잠시간의 활동과 정의

활동의 종류	정의
잠자리 준비	교사 또는 영아가 잠자는데 필요한 것(예, 이불, 요,베개, 인형등)을 가져와서 준비하는 과정의 행동
옷 입기/벗기	영아가 잠자기 전/후에 옷을 벗거나 갈아 입는 과정의 행동
잠자기	영아가 잠든 상태
일어나기	잠자고 일어나는 과정의 행동
잠자리 정리	잠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의 행동
머리 빗기	교사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빗는 과정의 행동
휴식	자지 않고 쉬거나 일어난 후 다른 영아들이 준비될 때 까지 휴식하는 과정의 행동

<부록1-6>전이 시간의 활동과 정의

활동의 종류	정의
준비하기	옷/신발 입고 벗기 등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행동
모이기	교사의 지시나 또래의 권유에 따라 모이는 과정의 행동
이동하기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행동
대소집단활동하며 기다리기	대소집단으로 모여 교사의 지시 또는 안내에 따라 활동(예, 손유희, 노래)하며 기다리는 과정의 행동
개별 활동하며 기다리기	집단이나 또래가 준비되기 전까지 개별 활동하며 기다리는 과정의 행동

<부록1-7> 귀가 시간의 세부일과와 정의

세부일과	정의
귀가 표시하기	옷(신발)을 입고 벗기 등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행동
겉옷(양말)입기	교사의 지시나 또래의 권유에 따라 모이는 과정의 행동
교사와 인사하기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행동
또래와 인사하기	대소집단으로 모여 교사의 지시 또는 안내에 따라 활동(예, 손유희, 노래)하며 기다리는 과정의 행동
소지품정리하기	사용한 소지품을 장에 정리하거나 가져갈 것을 챙기는 과정의 행동
학급에서 나가기	학급에서 나가서 현관으로 가는 과정의 행동
신발신기	실내화를 신었을 경우 벗어서 신발장에 넣거나 실외화로 갈아신는 과정의 행동
보호자와 인사하기	보호자와 같이 하원할 경우, 인사하는 과정의 행동
차량으로 이동	차량으로 하원할 경우,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행동
안전벨트 착용	하원버스 내에서 교사가 영아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과정의 행동

<부록1-8>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과 정의

상황/행동	정의
갈등상황	또래 또는 교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의 행동
투약 및 치료	약을 먹거나 다쳐서 치료하는 과정의 행동
개별적 휴식	학급 또는 양호실에서 개별적으로 휴식하는 과정의 행동
울거나 떼쓰기	울거나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또는 교사나 또래가 달래주는 과정의 행동
부모님과 통화하기	아프거나 보채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교사의 도움으로 부모와 통화하는 과정의 행동
활동실 밖으로 돌아다니기	활동시간에서 교실을 벗어나는 과정의 행동
선생님과 함께 기다리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의 행동
기저귀 갈기	교사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과정의 행동

ABSTRACT

The difficulties that teachers of one year-old toddler class experience

Jo, Mi Sook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e study has examined the difficulties suffered by toddler teachers who care the class of children age one during a daily schedule through a participant observation and an interview and has also examined the meaning. In this way, the predicament of toddler teachers is sought and the support plan for their working environment is also sought.

In order to achieve a study purpose, the selected study subjects are as follows.

Study subject 1. How were the difficulties that toddler teachers experienced in daily routine of 1-year old classes in daily activities?

Study subject 2. What is a meaning of difficulty that toddler teachers of 1 year-old classes experience from a daily routine?

The participant of a study has selected from 2 classes from

private day care center for 1-year old children which is located in G-si, Gyeonggido, and their teacher in charge.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3-months of participation observation from mid-April to the end of July, 2015, and total 16 participation observations on teachers in each daycare center have practiced once in a two weeks to observe a daily schedule from attendance to getting off. By utilizing the napping time and finishing time of work, total three in-depth interviews have practiced. Through a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interview, the collected data has written and read repeatedly to be categorized. The subject having a representative has designated by category, and the cases which represents a category of contents has selected and analyzed.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s established to achieve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difficulties that toddler teachers experience in daily routine of 1-year old classes, it was identified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a role of toddler teacher performance. It was identified that toddler teachers are feeling uneasy and fearful about the separation anxiety that appears when infants come to daycare center, impulsive behavior from self-centered thinking of infants during indoor · outdoor play and group activity time, inexperienced physical control compare to gross motor activities, and safety accident that occurs due to lack of recognition of safety. Toddler teachers were having great physical difficulties in taking

care of infants with insufficient self-care skill during cleaning time, bowel activity, and lunch and snack time among daily activities, and when they were putting toddlers to sleep alone during nap time according to individual physiological needs of infants. During a time of returning home, the toddler teachers has a difficult time with parents who show distrust while sharing information of child daily schedule, because 1 year-old child has not yet developed linguistically. Thus, 1 year-old class toddler teachers have received stress from entire daily task from time of attendance to time of returning home. As said, as far as toddler'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is concerned, difficulties that toddler teachers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conducting daily routines have very different nature from difficulties of infant teachers because toddler teachers cannot instruct toddler by language and have to help and teach every infant individually and repeatedly.

In addition, it seems that toddler teachers has not received an overtime allowance, even if they care children for all day, and they have suffered from the course to adapt children who are not accustomed to a regular and systemed child care center life to a daily schedule. An inefficiency space construction which has not considered movement and mobility of children, and physiological request, and characteristic has also made them difficult physically, and toddler teachers were experiencing suppressed feelings from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fellow teachers in a restricted space.

Second, the meaning of difficulties that teachers of 1 year-old

toddler class experience during a daily routine can be seen as an emotional labor, physical labor, and alienated labor. Emotional labor of toddler teachers is about having to hide negative emotions they experienced in various situations and they are required to express advisable emotions as toddler teachers. For caring environment that did not conside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1-year old infants, difficulties that toddler teachers experienced about having to conduct roles simultaneously for a long time can be considered as physical labor. As said, toddler teachers are experiencing alienated labor because they are experiencing mental and physical difficulties during the process of caring infants but they are not receiving trust,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proper support from director, parents, and the stat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specific and practical infant teacher training appropriate for the age of infants need to be conducted to lessen mental and physical difficulty of infant teachers, and efficient space organization that can support caring of infant teachers in physical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 is required. Changes in understanding that caring of infants in daycare center is not solely up to teachers but needs to be done by teacher, director, parents, society, and nation, and various service support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are necessary for caring of teachers at the national level.